

이런 한국인의 참상을 보고, 日本의 公人으로서 유일하게 4選市長인 모도시마 (本島等)長崎市長이 '92년 처음으로 韓國人被爆者의 가정을 1週日간 방문하고 謝過와 慰勞를 하고 다녔습니다. 日本에서는 그의 이런 行動을 내가 무슨 日本의 代表냐고 非難하였고, 그는 '88년 12월에 市議員이 “天皇에게 戰爭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質問에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해서, 7800통의 抗議書翰을 받았으며, 나중에는 극우단체의 拳銃狙擊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赤裸裸한 日本의 民心이고, 良心이란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런 참상을 日本政府에 呼訴하면, 日本政府는 '65년 韓日協定에서 모두 清算이 되었다고 하면서, 상대도 해주지 안 했습니다. 그래서 韓國政府에 泣訴하면 日本에서 입은 피해니까, 日本에 가서 呼訴하라고, 내몰았습니다.

당시 日本에는 原爆二法이란 두 법이 있어서, 醫療와 手當을 支給하고 있었습니다. 敗戰國의 國民은 後遺症治療도 받고, 手當도 받는데, 우리는 호소할 곳도 없이 죽어만 가고 있었을 당시인 '70년 12월, 釜山에 사는 日本胎生の 韓國人青年 孫振斗란 사람이, 日本에 密航을 해 가 逮捕되니까, 「나는 原爆被害者라 原爆症을 治療하기 위해서 왔으니, 原爆手帖을 交付해달라」고 했으나, 후쿠오카현(福岡縣)이 이를 거부해서, '72년 10월 孫振斗의 手帖裁判이란 裁判이 시작되었고, '74년 3월 30일에 후쿠오카 地法에서 勝訴하니, 韓國人被爆者들에게도, 어렵사리 救援의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동년 7월 22日 東京都에 協會 辛泳洙會長이 手帖을 交付해달라고 申請하니, 厚生省이 公중위생국장의 명의로, “이 手帖은 日本國의 領土를 벗어나면 效力이 없다”는 소위 通達 第402號를 시달해서 孫振斗 재판의 勝利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이후 '75년 孫재판은 高法에서도 승리했고, '78년 3월 30日 最高裁判所에서도 勝利했으나, 通達402號의 威力은 '98년까지 4半世紀에 걸쳐, 끄덕도 하지 않았던 것이니, 日本이라는 나라는 最高裁判所判決보다도, 일개 局長의 通達이 더 優位에 있는, 해괴한 法治國家라고 비난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94년 原爆二法은 被爆者援護法으로 발전 강화되었으나, 外國人被爆者에 대한 排除는 여전히 전했고, 단지 日本의 政治人들에게도 若干의 良心은 있었던지, 人道的인 支援이라고 하면서, ODA자금에서 40億圓을 지원하는데 그쳤던 것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被爆者들은 차츰 老衰化해 갔고, 支援金도 바닥이 나면, 다시 無援護상태에 이르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本人은 日本의 支援團體와 상의해서, 裁判鬭爭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98년 5월 오사카(大阪)의 病院에 입원해서 치료 중, 오사카府로부터 健康手帖을 再交付받았고, 健康管理手當도 5年間支給하겠다는 證書도 받은 뒤, 7월에 歸國하면서 계속 내 통장에 手當을 불입해달라고, 서면통보를 하고 歸國했더니, 豫想한 대로 出國해서 失權되었으니 被爆者가 아니고, 따라서, 手當도 支給할 수 없다는 통지서를 보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해 10월 1日, 오사카 地法에 日本國과 오사카府를 상대로, 出國했다고해서 失權이 되었다는데, 援護法의 어느 條項에 그런 것이 있으며, 또 어느 법에 手當支給을 中斷한다고 되어 있는가를 대라고 했던 것입니다.

援護法에는 手帖이 無効化되는 것은 死亡했을 때뿐이고, 國外로 나갔다고 해서 手當을 中止한다는 條項이 있을 수가 없는 즉, 國籍條項이나, 領土概念이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勝利할 수 있는 可能性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日本國은 援護법은 社會保障법이니, 그 사회에 거주하는 구성원이어야 하고, 税金을 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日本에 居住도 現在도 하지 않고, 한푼 세금도 안 낸 外國人이, 무슨 염치로 惠澤을 받으려하느냐고, 反論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孫振斗재판에서, 最高裁判所는 原爆二法은 國家補償의 성격이 基底에 깔린 법이라고 했으므로, 제 재판에서는 그 判例에 따라 援護法은 國家補償의 성격과 社會保障의 성격을 並有하는 법이라고 하면서, 本人의 손을 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실로 2001년 6월 1日의 오사카 地法の 勝利는 歷史的이고, 획기적인 判決이었습니다. 이로써 5천여 在外被爆者들의 活路가 열리는가 했더니, 日本政府가 控訴해버리니, 事件은 다시 原點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2002년 12월 5日, 오사카 高法에서도 完勝을 하게 되었고, 日本政府가 最高裁判所에 上告하려는 것을 단념시키기 위하여, 日本國會議員 55名의 모임인 “議員懇”을 중심으로, 言論界를 비롯하여 市民團體와 그리고 支援團體들이 渾然一體가 되어, 日本政府를 설득하고, 壓力을 가한 결과, 12월 18日, 드디어 5천여 在外被爆者들에게도, 上告를 斷念하고, 援護法을 適用하겠다고 屈伏한 것입니다.

따라서 2003년 3월부터 原爆手帖所持者에게는 그간 중지되었던 수당 5개년 소급분과, 每月 25日에는 개개인에게 手當을 支給하게 되었고, 今年 10월부터는 醫療支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金品은 비록 적은 金額이지만, 日本政府가 戰後 최초로 戰爭責任을 느끼고, 被害者들에게 지불하는 國家補償金입니다. 나는 이 判決이 여러 戰後 補償裁判의 出發點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로써 在外被爆者의 모든 문제가 모두 解決된 것은 아닙니다만, 나머지 문제들은 큰 길이 열렸으니, 차차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큰 난관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戰爭責任을 追窮하는 基本姿勢를 견지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被爆者들의 권익증진에 努力할 각오입니다.

끝으로 北韓쪽 인민공화국에 居住하고 있는, 2千名 가까운 被爆者문제입니다. 韓國被爆者와 미국에 거주하는 被爆者 약 1,000名(6할 미국국적 4할 日本국적)과 브라질피폭자 200名(전원 日本국적)의 문제는, 본인의 勝訴로 모두 해결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공화국에 거주하고 있는 被爆者들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本人의 생각으로는, 하루 속히 본인과 공화국피폭자대표가 회동하여, 실상을 파악하고, 日本政府로 하여금 被害補償과 援護法적용에 나서도록 다그쳐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차피 길은 열려 있으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日本의 사카구치(坂口力) 厚生労働省大臣은 “在外被爆者와 日本政府와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가 아니라, 被爆者 개인과 日本政府와의 관계다”라고 말해 오고 있습니다. 하루 속히 공화국피폭자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突破口가 뚫렸으면 하는 것이 本人의 懇切한 所望이라는 것을 強調하면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 韓国人原爆被害者の惨状と援護法裁判の勝利

韓国原爆被害者協会 元会長 郭貴勳

私は1924年(甲子年)生まれでありますので、日本の植民地時代、徴兵第1期に該当しました、それで1944年の9月、全州師範学校5年在學中に、卒業を半年前にして日本軍に徴集され、廣島の西部第二部隊(舊歩兵第11聯隊)で幹部候補生の訓練中、翌年の8月6日、人類最初の原子爆弾に爆心から2KMの地点で被爆し、9死に1生を得てやっと生き残った者であります、

被爆した後祖國に歸り本職の教育に携わる一方、67年からは韓国原爆協会の創立に參與するなど、現在まで40年近い永い間ひとえに、日本政府に向かって韓国人被爆者たちに謝罪し補償しなさいと要求してまいりました、

原子爆弾を投下したとき、廣島市の人口は42萬名でありました、其のなかに韓国人は五萬名ほど住んで居ただろうと推測されていますが、5萬人中3萬名程が被爆のあと亡くなり、2萬名は生き残ったろうとされています、9日には長崎にも2番目の原爆が投下されましたが、當時長崎の人口は27萬人で、韓国人は2萬人ほどだったし、1萬人ほどは即死しましたが残りの1萬人は生き残ったろうと推定されてもおります、

廣島、長崎の被爆者は70萬人ですから、其のなかの一割の7萬人は韓国人なのです、其の7萬人中4萬人がなくなり、2萬3千人が祖國に歸り、七千名程が日本に残ったろうといわれておりますが、誰もはっきりした数は分らないし、知る術も有りません、

解放された祖國に喜んで歸ったものの、被爆者にとっては祖國での生活は炭の道でした、彼らには家族と共に安住するための家もなく、耕すほどの農地もなかったし、被爆者の外貌はハンセン病の患者と區別もつかず、言葉も不自由でしたから周囲の人人から忌避されました、それに原爆後遺症に苛まれていましたが、病院はおろか薬を買う小錢も有りませんでした、それで千秋の恨みを胸に刻みながら他界していきました、實に涙なくして彼らの惨状を見ることも、聞くことも出来ませんでした、

そんななかで 李南洙という者は”私が死んだらわたくしの屍體を日本大使館に持っていけ”との遺言を残して死んでいきました、こんな惨状だから韓国の被爆者の苦しみを三重苦の被害者だと言われました、1番目は強制連行されましたし、2番目に被爆され、3番目は被爆後死ぬまで放置されたからです、

現在日本には28萬餘りの被爆者がおりますが、韓国にはその10%の被爆者が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今協會に登録している数は、日本の被爆者の1%にもならない2,100名ほどです、皆何處に行きましたかと言ったら、皆皆黄泉の客となりました、

こんな韓国人の惨状を見るに見かねて、日本の公人としてはただ一人、四選市長でもあった本島等長崎市長が、92年1週間の豫定で韓国の被爆者の家を訪問して、謝罪と慰問をして廻りました、當時日本國內の輿論は、”お前が何の日本國の代表か”と、本島市長の行動を非難する聲も高かったのです、彼は88年市議會で議員が「天皇に戦争責任が有ると思うか」との質問に「そうだ」と答えたと言う事件で、7,800通の抗議書簡を受けたり、遂には右翼團體の仕業らしい拳銃狙撃的にもなりました、

これが日本の偽らざる大衆心理であり、良心で有ると言うことを私たちははっきり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のです、

私たちがこのような惨状を日本政府に訴えると、日本政府は65年の韓日協定で皆清算が済んだと言いながら、相手にもしてくれませんでしたし、韓国政府に泣訴すると、日本で受けた被害だから日本に行って訴えなさいと言って、追い出されました、

當時日本には原爆二法という法律が有って、醫療と手當が支給されておりました、敗戦國の國民は後遺症の治療も出来るし、生活費の支給も受けるのに、私たちは訴えるところもなく死去していきました、そんな時であった70年の12月、釜山に住む日本生まれの韓国青年である孫振斗が、日本に密航して行って逮捕されると、「自分は原爆被害者だから、原爆病を治療しに来たから、治療するための原爆手帳を交付してくれ」と訴えましたが、福岡縣がこれを拒否したので、72年10月、世に言う孫振斗の手帖裁判が始まりました、

74年の3月30日、福岡地裁で勝訴すると、韓国の被爆者にも何とか救援の手が差し伸べられると、期待したのもつかの間、同年の7月22日、辛會長が東京都に手帳を交付してくれと申請すると、同じ日に厚生省は”この手帳は日本國の領域を越えると無効になる”と言う、公衆衛生局長の通達402號を出して、折角の裁判の勝利を反故にしてしまいます、

それ以後 75年には高裁で勝ち、78年3月30日には最高裁でも勝ちましたが、通達402號の威力は98年まで4半世紀も威力を発揮いたします、實に日本という國は最高裁の判決よりも一局長の通達が優位にある可笑しな、法治國家なのです、

94年原爆二法は被爆者援護法に、發展強化されましたが、在外被爆者を排除する事には變わりがなく、一部の政治家にも一抹の良心はあったのか、人道的支援だといながら40億圓をODA資金から支援してくれながら、事足れりの態度でした、

歳月が経つほど被爆者たちは、老衰化していき、やがて支援金も底をつくので、そうすれば又、無援護状態になるのがはっきり見えてきた98年、私は日本の支援團體と相談して裁判闘争に踏み切る道順を歩みました、同年5月松原市にある阪南中央病院に入院して、原爆手帳の再交付と、健管理手當を五ヶ年間支給するという通知書を貰って歸國しながら、續けて私の通帳に手當を振り込むよう頼んで歸りましたら、大阪府から出國で失権になりましたから、被爆者でもなく手當も拂えないとの返



事を貰いました。

それで98年10月1日、大阪地裁に失権された法的根拠と、被爆者の資格が有るのか、無いのか確認してくれと日本國と大阪府知事を相手に、裁判闘争をはじめました。勝てると思うかの質問に、私は韓国だったら裁判をする必要もない常識的な問題だから、法的には必ず勝つが、外國人が外國の裁判所で外國の法律によって、外國の裁判官の判断を待つのがだから必ず勝つとは言えないと、答えてきました。

援護法には手帳が無効になるのは死去したときだけだし、國籍も國土の領域も何も明記されておられません、だから勝つこともできるとの思いもしました。

反面、日本政府は援護法は社會保障法だから、其の社會の構成員が税金を納めてからでない、保障が受けられないのに、居住も現在もしていないばかりか、一文の税金も納めていない外國人が、厚かましくも手當を支給してくれとは、答辯の餘地もないと痛駁してきました、でも孫裁判で最高裁は、原爆二法は國家補償的性格が基底にある法律だと、判示しましたので、私の裁判ではその判例に依って、援護法は國家補償的性格と、社會保障的性格を併有する法律だと言いながら、私の手を擧げてくれました。

實に、2001年6月1日の大阪地裁の勝利は、企畫的で、歴史的な判決でした、これで5千名餘りの在外被爆者たちにも、宿願の補償がなされ貧困からの活路が開けると思いましたが、日本政府が控訴すると、問題は又原點に戻っ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も2002年12月5日、大阪高裁で完勝することができたし、日本政府が最高裁に上告しようとするのを、斷念させるために、私を支援する日本國會議員55名の“議員懇”を中心に、マスコミを始め、市民團體や支援團體と手を取り合い、全力を盡くして日本政府を説得し、壓力を加えた甲斐があって、12月18日、遂に5千名餘りの在外被爆者にも、上告を斷念して援護法を適用すると、屈服下した次第であります。

此れによって、2003年3月から、原爆手帳が有る者は、その間中止されていた週及分五ヶ年分と、毎月25日には各自の通帳に、手當が振り込まれますし、今年の10月からは醫療費も支給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こんな金品は例え少額であっても、日本政府が戦後始めて、戦争責任を痛感し被害者に支拂う、國家補償金でありますから、大變重要な意義がありますし、これからの多くの戦後補償裁判の、出發点になると思います。

此れで總ての在外被爆者問題が解決済みだとは、勿論考えておりません、残っている色々な問題は、大きな道が開けましたから、追々解決するのに大きな支障は無いことだろうと思っております、戦争責任を追窮する基本姿勢を崩さず、これからも被爆者たちの權益を守るために、努力するつもりであります。

終わりに、北の共和國に居る2千名ほどの被爆者の問題であります、今まで中上げた通り私の裁判の勝利で、韓國の2千名餘りの被爆者は勿論、アメリカにいる100

0名(六割アメリカ國籍、4割日本國籍)ほどと、ブラジルの200名(全員日本國籍)の被爆者達が、日本國內の被爆者と同じく援護法の適用を受けられるのですが、三重苦の被爆者である北の被爆者だけが、除外されておりますから、1日も早く北の被爆者にも援護法を適用するように、日本政府に迫らなければならないだろうと思います。

既に道は開けておりますから、困難は無いと思います、日本の厚生労働省の坂口力大臣は

“在外被爆者と日本政府の関係は、國と國の関係でなく、日本國と被爆者個人の関係だ”と何時も話していますから、解決の糸口は見つかりそうであります。

北の被爆者達と近い將來に逢って、こ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に、共に努力する日が到来することを切に望みながら、私の話を終わります。有難うございました。



리상옥(북한)

위안부 연행 피해자

13세때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가 《보국대》에 끌려가게 되어 3형제가 제각기 헤어지면서 리상옥은 송림 (당시 겸이포)에서 구장집의 아이보개로 들어감.  
3년이 지나 17살 나던 1943년에 일제에 의하여 한동네에 있던 다른 2명의 처녀들과 함께 평안남도 순천 부근의 어느 한 산골짜기에 있는 일본군 《위안소》에 끌려가게 됨.  
여기서 약 1년동안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던 중 같이 끌려 온 한 처녀가 일본군에게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이 죽음의 소굴에서 뛰쳐나갈 것을 결심하고 다른 1명의 처녀와 함께 깊은 밤에 《위안소》를 탈출하였다.

남경대학살 피해

姜根福 : 남, 1930년 1월 19일 태어났음, 한족, 남경 출신  
原 南京長江燃料公司上元門船隊 기사

중국 침략 일본군의 남경대학살 때, 우리 집 식구가 8명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누나 둘, 남동생 3명(원래 큰 누나 한 명 더 있었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원래 한 낚은 배에서 살고 있었는데, 일본군을 피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우리를 데리고 잠시 시골로 피난 갔습니다. 우리가 배를 三河 쪽으로 저으러 갑니다. 石梁柱에 도착했을 때 작은 배가 물이 새어 계속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부득이 배를 버려 상륙하고, 독 제방을 따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강가에서 10여 칸 비교적 좋은 주택이 있었지만 주인이 모두 도주하였습니다. 여기는 쉽게 일본군에게 발견할 수 있으므로 우리도 여기서 머무르지 못하였습니다. 잘 숨기 위해서, 아버지는 누나 둘 데리고, 어머니는 우리 4형제를 데리고, 갈라져 갈대숲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호응하기 위해서 100미터 가량을 서로 떨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젖이 없어서 작은 남동생이 배고파서 젖을 먹으려고 울었습니다. 이때 10여 명 일본군이 제방을 거치고 있었는데 울음소리를 따라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제 어머니를 발견하여 바로 강간하려고 어머니를 끌었습니다. 어머니가 남동생을 안고 반항했습니다. 인간성 완전히 소멸된 일본병사는 어머니 품에서 아이를 탈취하고, 힘들여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이미 떨어져죽은 동생을 향해 뛰어들고, 일본병사가 뒤쪽부터 어머니에게 2총을 쏘았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일본군이 간 후에, 아버지는 나무판과 돛자리를 찾아서 어머니와 작은 남동생을 갈대 강가에서 묻었습니다. 더욱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해서 계속 갈대숲 중에 숨고 있었습니다. 3일 후 일본군이 제 아버지를 발견하여 그를 잡아갔습니다. 이후 소식이 감감했습니다. 2일 후 일본군이 또 갈대숲에 찾아와서 제 11세의 둘째누나를 보고 강간하려고 했습니다. 둘째 누나가 지금 수운 학교 부근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일본군에게 붙잡혔습니다. 둘째 누나가 일본군과 맞서 싸우고 한 일본군이 군도를 뽑고, 누나를 머리부터 반으로 쪼갰습니다! 불과 며칠 안에 일본군이 제 어머니를 총살하고, 제 남동생을 떨어뜨려 죽이고, 제 누나를 칼로 쪼개고 제 아버지를 잡아갔습니다. 일본군 때문에 저는 집도 잃고 가족도 잃게 되었습니다. 오누이 4명은 의지할 것도 없고 풍족한 생활도 얻지 못하여 유랑생활을 오래하였습니다.

(번역 가금영)



## 姜根福 证言

姜根福 : 男, 1930年1月19日生, 汉族, 南京人  
原南京长江燃料公司上元门船队司机

### 主要受害事实:

侵华日军在南京大屠杀时, 我们一家原有八口人, 就是父、母、两个姐姐、三个弟弟(本来我还有个大姐, 因为家里太穷, 早已送给了人家)。全家原来住在一条破船上, 为了躲避日军, 父亲带我们暂时到乡下去躲一躲。我们把船向三汊河方向划去。到了石梁柱, 小船漏水了, 无法继续划行, 只好弃船上岸, 沿着圩堤向前行走。岸边虽然有十多间比较好的房屋。居民都逃走了, 但这里容易被日军发现, 我们也不敢住。为了隐蔽一些, 父亲带着两个姐姐, 母亲带着我们四个兄弟, 分开躲进芦苇丛, 相隔一百米左右, 以便照应。因为母亲没有奶水, 小弟弟饿得慌, 哭着要吃奶。这时正有十来个日军从堤上经过, 顺着哭声找来, 他们发现了我的母亲, 就拉出去要强奸。母亲抱着弟弟反抗, 绝灭人性的日本兵, 从母亲怀里夺过孩子, 用力摔在地上。母亲哭着扑向已被摔死的小弟, 日本兵从背后向母亲开了两枪, 把母亲打死了。日军走后, 父亲找来一些木板和草席, 把母亲和小弟弟埋在芦苇岸边。因为找不到更安全的地方, 所以仍在芦苇丛中躲藏。第三天, 日军发现了我父亲, 又将他抓走, 从此一去就杳无音信。又过了两天, 日寇又来到芦苇丛, 看见我十一岁的二姐, 竟要强奸她。二姐逃跑, 跑到现在的河运学校附近, 被日军抓住了。二姐连骂带踢与日军拼打, 一个日军抽出军刀, 将二姐从头劈为两半! 就这样几天之内, 日军枪杀了我母亲, 摔死了我弟弟, 刀劈了我姐姐, 又抓走了我父亲, 使我家破人亡, 姐弟四人失去依靠, 不得温饱, 过了好多年的流浪生活。

## 증언 위안부피해자

### 대만(臺灣) 위안부 할머니 - 루만메이(盧滿妹)

이름 : 루만메이(盧滿妹)  
연령 : 79세

저는 루만메이라고 부릅니다. 올해 79세이고 대만성(臺灣省) 신죽현(新竹縣) 호구향(湖口鄉)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네는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하였고 동생 10명 이 있기 때문에 엄청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3살 때 부모님에 의해 아버지의 사촌형에게 양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양아버지는 작은 장사를 하였는데 고정된 수입이 없었으며, 양어머니는 산에 올라가 차를 따는 일을 하여 집안 살림에 보탬을 하였지만 생활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 학교에 다녔으나 글자를 읽지 못합니다.

17살 되는 해, 저는 어떤 사탕수수농원에서 일을 하였는데 그 때 죽북(竹北)에서 여관을 경영하는 종(鍾)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종선생은 저에게 해남도(海南島)에 가서 간호원이 되라고 유세했습니다. 저는 글자도 몰라 가지고 어떻게 간호원이 될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는 식당에 가서 반찬을 나르는 일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학교에 얼마 안 다녔던 시골사람이라서 머리가 간단하고 시비를 판단하는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당시 해남도에 가서 일하면 1년 봉급이 사탕수수농원에서 주는 봉급보다 훨씬 많다고 들었고 저도 역시 기회를 찾아 돈을 벌어 가난한 집안 형편을 개선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해남도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얼마 후, 종선생은 17, 18세에서 20여세쯤 되는 여자 30여 명을 모집하여 놓았습니다. 그 가운데 8명이 신죽(新竹)에서 왔고 다른 사람들은 기산(旗山)이나 대북(臺北)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기차로 고퉁(高雄) 부두에 왔습니다. 그런데 배를 타기 전에 증명서를 검사하는 경찰이나 세관원이 안 보였습니다. 우리 30여 명 여자들은 아무런 증명서도 없이 돈 한 푼도 없이 홀몸으로 군함에 올라갔습니다. 이 군함은 아주 컸고 손님이 모두 일본군인이었습니다. 약 일주일동안 지나 해남도의 유림(楡林) 부두에 이르렀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즉시 군용트럭으로 우리를 홍사(紅砂)이라는 곳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그 곳이 식당이 아니라 일본군대의 위안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7살에 처음 손님을 맞았을 때 엄청 겁났습니다. 그리고 속임수에 들어서 그 곳에 왔기에 마음속으로 고통스러워 반항이 매우 심하였고 손님을 맞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지만 위안부 일을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니라고 일본군에게 알려주었지만 전혀 상대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남도에서 약 2년 정도 시달리다가 뜻밖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안소의 마담은 임신 8개월 동안 손님을 계



속 맞도록 저에게 강요했습니다. 8개월 정도 임신되어 의사가 증명서를 내어주어서야 저는 비로소 대만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배가 만삭이 되어 이용가치도 없어지고 또 학질도 걸렸기 때문에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는 대만이 아직 광복되지 않았습니다. 99원을 내어 배표를 떼고 큰 배로基隆(基隆) 부두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아이는 제 혈육입니다. 그래서 대만에 돌아온 후 아이를 낳아서 '海雄'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불행하게도 38일 되어 아이가 요절하였습니다. 저는 슬픈 마음을 가지고 험한 앞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토목공이나 미장일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향사람들은 제가 해남도에서 왔고 거기서 위안부로 일한 것을 알게 된 후부터 저에 대한 평판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늦도록 결혼하지도 못했습니다. 38살 때 남의 소개로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했을 때 저를 잘 대해 주었지만 후에 제 과거를 알고는 감정이 변하게 되었고 나중에 밖에서 다른 여자를 얻어 생활하였습니다. 우리는 아들 하나 낳았는데 아들이 심한 소아마비증에 걸렸습니다. 우리는 남편에게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몇 십 년 동안 저는 어떤 힘든 일도 다 해 보고 어떤 어려운 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지금 경찰들에게 빨래를 해 주고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서 살아왔는데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육체노동을 하여 제 몸은 다른 할머니에 비해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하여 멀리 가지 못하는 자매들을 대신하여 자주 외국에 가서 회의를 참석하여 지금까지도 일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데 대하여 항의를 해왔습니다. 외국에 갈 때마다 매우 피곤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대만 할머니들을 대신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좋은 결과를 얻고 싶습니다. 일본을 법에 소송하는 것으로써 우리가 원래 가져야 한 존엄과 늦게 찾아 올 사과를 얻으려고 합니다.

(번역 가금영)

## 前台灣慰安婦阿嬤

Name : 盧滿妹 (Lu, Man-mei)

Age:79

我是盧滿妹，今年七十九歲，出生在台灣省新竹縣湖口鄉。我家靠種田維生，因兄弟姊妹有十人，生活過得非常辛苦。三歲時父母把我送給了父親的堂哥當養女，養父是個小生意人，並沒有固定的收入，養母則在山上採茶幫助家計，生活也貧苦。我雖然讀到小學三年，但仍不識字。

我十七歲時在一個甘蔗園作工，遇到了當時在竹北經營旅館的鍾先生，他遊說我去海南島當護士，我告訴他我不識字如何當護士，他說可以到食堂去做端飯菜的工作。我是一個沒有獨多少書的鄉下人，頭腦簡單，根本沒有判斷事情好壞、真假的能力。當時聽他說去海南島一年的薪水比我種甘蔗來的多，而我一直很希望找機會改善貧窮的家庭生活，所以決定前往。

過了一段時期，鍾先生徵集了約三十多位年紀十七、八歲到二十多歲的女子，其中新竹來的有八人，其他分別是旗山和台北來的人。我們搭乘火車到高雄港，登船以前並沒有看見有警察或海關人員錢來檢查什麼證件，我們一行三十幾個女生就在沒有證件也身無分文的情況下登上了軍艦，這艘軍艦很大，船客都是日本軍人。大約航行了一星期，才抵達海南島的榆林港，下船後，立刻有軍用卡車前來帶我們到一處名叫「紅砂」的地方，到那之後才發現根本不是開食堂的地方而是一個日軍的慰安所。

十七歲，第一次接客，好害怕!!被騙到那兒，心裡很痛苦，很反抗，不願意接客，告訴日軍，我是來做服務生的，不是做這個，但日本兵完全不理會。就這樣在海南島煎熬了約兩年，我意外懷孕，但慰安所的老闆仍強迫我接客八個多月，直到我懷孕八個月，經醫師開證明書才准回台，我想也是因為我大腹便便，沒有利用價值了，又得了瘧疾，台灣尚未光復，我自己花了九十九元買船票，坐大船到基隆港回來。

不論如何，他還是我的骨肉，所以返台後我還是將這孩子生下來，取個名字叫「海雄」，不幸的是生下來三十八天就死了，懷著傷痛的心，面對著我未來坎坷的路。之後便開始做土木、水泥小工維生。之後同鄉的人知道我是從海南島回來的，在那裡做慰安婦，因此名聲不好，也就遲遲沒有結婚。直到三十八歲的時候，透過人家介紹認識了先生，剛結婚的時候他對我很好，後來知道我的過去，感情就變差了，最後他就到外面找女人了。我們生了一個兒子，是重度小兒麻痺，我丈夫



把我們給拋棄了，幾十年來我什麼苦工都做過，沒什麼好害怕也不怕困境。

我目前靠幫警察洗衣服及政府補助維生生活過得很辛苦，因為長年勞動的關係，我的身體相較其他阿嬤還算硬朗，常常替其他無法出遠門的阿嬤姊妹們，出國參加會議，抗議日本到現在都不負責，雖然每次出國都讓我感到很疲累，但是不管再苦再累，都堅持要代表台灣阿嬤向日本政府討回公道，希望能夠藉由對日訴訟，贏回我們應有的尊嚴及遲來的道歉。

## 대만 위안부 할머니 - 쟁천타오(鄭陳桃)

이름 : 쟁천타오(鄭陳桃)

연령 : 83세

저는 쟁천타오라고 부릅니다. 올해 83세이고 대북시(臺北市)에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갔고 아버지가 후처를 얻었습니다. 계모는 저를 잘 대해 주지 않았고 걸핏하면 저를 때리고 욕하였습니다. 아버지가 과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데 생활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할머니는 고령에 작은 아버지를 낳았습니다. 가정 형편이 가난하였기 때문에 저는 9세에야 비로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버지와 함께 초등학교에 다니었고 언제나 앞 10명 내에 들어갈 만큼 학습 성적이 우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품행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가는 쯤에 해서 작은 아버지는 계모와 짜고 들어 저를 민며느리로 남에게 팔았습니다.

양어머니의 딸이 저를 잘 대해 주지 않고 늘 저를 때렸는데 하이힐로 제 늑골 두 개를 밟아 꿰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어머니의 아들이 친동생처럼 저를 대해 주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그의 도움으로 집에서 달아나 기차를 타고 셋째 고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셋째 고모님의 친척이 다시 저를 양녀로 사갔습니다. 이 양아버지는 저를 잘 대했습니다. 저는 1년 동안 시험 준비를 하고 이듬해에 여자고등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학교로 가는 길에는 어떤 파출소가 있어 반드시 이 파출소를 지나가야 하였습니다. 1942년 6월 4일, 이날은 제 평생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그 날 저는 평소처럼 파출소 앞을 지나 기차를 타려고 기차역으로 가는데 경찰이 저를 부르면서 지프로 저를 학교에 태워주겠다고 기만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을 무서워서 경찰의 말을 의심할 용기도 없고 그를 따라 지프로 올랐습니다. 그러나 지프는 대남(臺南)을 지났고 우리 학교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급해 어디에 데려가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경찰은 “조용해! 묻지 말라! 도착하면 곧 알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차가 어떤 작은 여관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저를 위(魏)씨 부부에게 부탁하고는 떠났습니다. 그 때 여관에는 이미 20여 명 젊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위씨 부부가 우리를 고웅(高雄) 부두까지 데리고 가서 「Asahimalu」라는 군함에 올라타게 했습니다. 군함이 베트남을 거쳐서 Andaman 쪽으로 이르렀습니다. Andaman은 인도양 가운데 있는 작은 섬이었습니다. 일본군대의 명칭은 Ishikawa butai이며 군대번호는 1917인데 해군군대에 속했습니다. 군대 병영이 시내에 있고 위안소가 바닷가에 있었습니다. 저는 Andaman에서 1년 2개월 정도 있다가 군대의 지시대로 다른 20대 대만 여자와 같이 모두 6명이 塞班島 위안소로 가기로 했습니다. 1945년 4월, 월경이 오지 않아 군의한테 가서 검사해 보니 임신으로 확인 받았습니다. 그해 8월15일 일본이 투항을 선포하였고, 저는 뱃속에 4개월 되는 아이를 품고 일본 적십자 배편으로 Johor에서 대만 고웅(高雄)으



로 왔습니다. 상육한 후 제가 반병산(半屏山)병원에 보내게 되었는데 후에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퇴원한 후 저는 기차로 대북(臺北)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이미 세상에 떠나신지 2, 3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제가 남양에 간 것을 알고 창피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 저를 매우 깔보고 지독한 말로 욕했는데, 너무 흉악하게 저를 대했습니다. 그 당시 만약 작은 아버지가 계모와 짜고 들어 저를 양녀로 남에게 팔지 않고 그리고 또 다시 남한테 팔리지 않았다면 저도 경찰에게 기만되어 외국에서 억제로 위안부 노릇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계속 참을 수가 없었고 인격의 존엄도 상하게 되었고 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분연히 떠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28세에 결혼했습니다. 4년 뒤에도 아이를 낳지 못하였기 때문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저를 나가게 했습니다. 32살에 이혼한 후 남편은 재혼하였습니다. 저는 고웅(高雄)에 가서 남에게 밥을 해주었다가 후에는屏東으로 이사하고 야자를 팔면서 살아 왔습니다. 45살 때 두 번째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나를 깔볼까봐 걱정해서 그에게 제 과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온하게 20년 살아 왔는데 어느 날 남편이 뜻밖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외로운 생활을 벗어나려고 3개월 되는 아이를 양자로 맡아서 길렀습니다. 제가 힘을 들어 그를 크게 키웠으나 그는 정당한 일을 하지도 않고 빈둥거리기만 하고 도박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집 한 채를 사 주고 장가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이혼하였습니다. 지금도 늘 저에게 와서 돈을 얻어가지고 노름빚을 갚습니다.

(번역 가금영)

## 前台灣慰安婦阿嬤—鄭陳桃

Name : 鄭陳桃 (Cheng Chen, Tao)

Age:83

我是鄭陳桃，今年八十三歲，在台北市出生，我母親在我三歲時過世，父親再娶，繼母對我很不好，經常打我罵我，父親以賣水果維持家計，生活負擔很重。

祖母很老才生下我叔叔，由於家庭貧窮，所以我約九歲時才入學，和叔叔一起讀小學，我讀書成績很好，都在十名以內，叔叔的品行從小就很壞，在我國小畢業考上中學校那年，叔叔與繼母串通，把我賣給別人當童養媳。

養母的女兒對我很壞，曾經動手打我，用高跟鞋踩斷了我兩根肋骨。養母的兒子對我像兄妹一樣，中學畢業後，他幫助我逃離他家，我買了張車票，去找我的三姑。三姑的親戚再買我做養女，這個養父對我很不錯，我準備了一年的功課，第二年考進了高等女學校。

在我上學的途中，一定會經過一間派出所。一九四二年六月四日，這一天改變了我一生的命運，我和平日一樣通過派出所門前要去火車站搭車，警察叫住了我，騙我說要用吉普車載我去學校，我很怕警察，也不敢懷疑警察說的話，所以就隨他坐上了吉普車，但是車子開過了台南沒有經過我的學校，我很著急，就問警察要帶我去哪裡？警察說：「安靜！不要多問，到達目的地就知道了。」車子開到了一間小旅館，警察把我交給一對姓魏的夫婦後就離開了。此時旅館裡已約有二十餘名年輕女子。

第二天，魏姓夫婦帶我們去高雄港碼頭，我們登上了一艘叫「Asahimalu」的軍艦，軍艦向越南方向航行，再航向Andaman。Andaman是印度洋中的小島，日本軍隊的名稱叫「Ishikawa butai」，軍隊番號是一九一七，屬於海軍部隊，營區設在市中心，慰安所靠近海岸邊，我在Andaman慰安所住了一年二個月後，部隊指定我和其他二十多歲的台灣女子，一共六個人預備前往塞班島慰安婦所。

一九四二年四月我沒來月經，到軍醫那裡檢查，得知懷孕了，同年八月十五日日本宣布投降，我懷著四個月的身孕，從Johor搭乘日本紅十字船抵達台灣高雄港上岸，我被送到半屏山海軍醫院後，流產了。出院以後，我搭乘火車直接去台北家探望親人，祖母已去世二、三年，叔叔知道我去過南洋，認為我做了見不得人的醜事，非常的鄙視我，他用很難聽的話罵我，對我很兇，想當初如果不是他和



繼母把我賣給別人作養女，而且一賣再賣，我也不會被警察騙，淪落海外被迫做了慰安婦。我嚥不下這口氣，覺得人格嚴重的受到傷害，就下定決心離開他們，從此再也沒有回去過。

我二十八歲結婚，結婚了四年，因為我不能生育，所以丈夫、婆婆要我離婚，我三十二歲離婚後，丈夫再娶，我就去高雄替人煮飯，後來遷居屏東賣椰子。四十五歲時認識了第二任丈夫，我害怕被他看不起，從未告訴他我過去的事情，如此平靜的過了二十年生活，沒想到有一天，他突然車禍身亡。爲了排除孤寂的生活，我收養了一個三個月大的男孩做養子，很辛苦的養育他長大後，他卻不務正業，遊手好閒，喜歡賭博，我買了一間房子給他娶妻，他結婚不久就離婚，至今仍然經常的來向我要錢買東西、還賭債。

## 내 삶을 변화시킨 전시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고통스런 기억들

암모니타 바라자디아(세계2차대전 당시 필리핀 전일본군성노예, 76세)

나는 암모니타 바라자디아(Ammonita Balajadia)이며, 1928년 4월 21일에 태어났다. 지난 달 내 76번째 생일날이었다. 그날은 내 생일인 것도 잊은 채, 서울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했다. 한국의 대사관 행정 담당자 박씨는 넬리아 산초(Nelia Sancho)와 나를 맞이해 주었고, 우리 동료들과 기자인 리카르도 말레이(Ricardo Malay)는 마카티 시의 한국 식당에서 따뜻한 점심 대접을 받았다. 또 나는 그날 초콜릿도 받았다.

나는 고통스러웠지만 일본군 성노예로서의 경험을 상기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일본 정부를 향한 깊은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었으며, 오늘날엔 변화된 삶을 가지게 되었다. 1945년 전쟁이 끝난 직후, 13살의 어린 나이로 이사벨라(Isabela)의 산티에고(Santiago)에서 일본군 주둔병의 성노예로 구금됐었던 결과 나는 2년 간 쇼크 상태에 있었다. 나는 전시 동안의 과거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했고, 학교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없었다. 나는 삶을 끝내고 싶었고 일본인 장교에 의해 잔인하게 강간을 당한 이후로 그 생각을 하루도 떨칠 수 없었다.

1992년에 나는 여성의 인권 그룹, AWHRC와 그 파트너인 가브리엘라(Gabriela)와 접촉하기 위해 찾아갔으며, 그들에게 나의 비극적인 경험에 대해 이야기했다. 일본 전시의 잔인성 때문에 폭력당한 여성으로서, 나는 그들이 나의 권리를 회복하고 존엄을 확인하기 위한 지지를 해주길 바랐다. 1992년 이후 나는 나의 세계가 바뀌었다고 느꼈다 - 나는 9개 국가를 여행하면서 나를 동정하는 많은 이들을 만났다. 나는 머릿속의 새로운 생각들과 더불어 나의 이야기를 연설하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세계를 변화시키고 수백만의 소녀들과 여성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다.

전쟁은 끝나야만 한다. 강간과 성 노예제도는 전 세계에서 멈추어야만 한다. 국제 사회는 일본 군대의 극악에 대해서 알아야만 한다. '위안부'로 완곡하게 알려진 전시 성노예로서의 우리 이야기는 들려져야만 하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설명할 책임이 있다. 범죄를 성실하게 승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상함으로써 일본은 이 문제를 끝맺을 수 있다.

나는 지속적인 여행과 국제회의 참가를 통해 권한을 부여받게 되었다. 일본 시민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친구들과 국민으로부터 지원과 우정과 연대의 힘을 얻어내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아침에 깨어날 때 마다 나는 감사함을 느끼며, 이번 회의에서와 같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음에도 감사한다. 현재 매일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어떻



게 삶을 오랫동안 연장시키고 나 스스로를 새롭게 하는 행복함을 경험할 것인가이다. 전에 길을 잃고 방황하며 매일 매일 죽기를 희망하던 곳에서, 오늘 나는 나 자신에 대한 놀라움과 행복함을 느끼며 내 안의 긍정적인 면들을 다시 찾아내려 한다. 그것은 일본 정부로부터의 해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희생자는 아직도 정당한 이유를 얻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전쟁 범죄에서, 인류가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여 일어섰던 것은 멋진 현실이다. 내가 필리핀과 다른 국가의 많은 단체들로부터 받았던 지원은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고, 인류에 대한 믿음을 확신케 했다. 그리고 나는 일본의 과거사 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가 정의를 위해 함께 일함으로써, 전쟁의 고통을 완화시키고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표현할 또 다른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한 방법으로, 인류는 전쟁 동안에 일어난 모든 비참함과 잔혹성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상기시키게 될 것이다. 때때로 고통은 경험되어야만 하며,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당연시 여겨서는 안 된다.

필리핀의 피해자 단체인 로라스 캄파니에라(Lolas Kampanyera)와 여러 피해자 지지 단체들은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한다. 그것은 필리핀 하원과 상원의 구성원들과 함께한 우리의 끊임없는 로비 활동으로부터 이끌어낸 제안이다. 우리의 제안은 일본의 전쟁 범죄 해결을 위한 이슈들과 정책들을 토론하기 위해 아시아 입법자들과 의원들이 규칙적인 워크숍과 포럼을 갖자는 것이다. 장소는 여러 국가들이 돌아가며 정할 수 있다. 필리핀은 워크숍을 개최하기를 바라고 있다 - 우리는 일본의 과거사청산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다른 국가의 의원들과 대화하는 것을 요청하며 필리핀 입법자들의 파트너가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고통이 잊혀지지 않도록 내 이야기 전부를 나누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인류를 위한 평화로운 현재와 미래를 개설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역사적 과거의 교훈들을 공유하는 것을 계속 하고자 한다.**

농부였던 나의 아버지 Eladio Balajadia와 공립학교 선생님이었던 나의 어머니 Felomina Lalu와 함께 어린 시절의 나는 아주 평화롭고 행복했다. 나는 1928년 4월 21일에 Nueva Ecija, Cabaio, San Vicente에서 태어났다. 나는 13명의 형제자매들 중 셋째였는데, 전쟁 직전에는 6명만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전쟁 동안 3명이 더 죽었다. 우리들 셋, 나와 남자 형제 둘만이 생존해 있는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나의 아버지는 Isabela의 Santiago로 이사를 가기로 결심했다. Santiago는 아버지가 쌀을 경작할만한 7헥타르의 농가가 딸린 경지를 사고, 야채와 과일을 경작했던 Tumana와 Kaingin의 추가적인 농장 5헥타르를 살 수 있는 곳이었다. 우리의 식

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충분히 먹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어머니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동안에 어린 동생들을 돌보는 것을 비롯하여 집안의 일들을 해야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 위의 오빠들처럼 교육받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학교에 갈 수 없었다.

1942년 12월이 되었다. 일본 군대가 필리핀 점령을 위해 도착했을 때 나는 11 살이었다. 나의 가족이 일본 군대로부터 경험했던 첫 번째 잔학은, 그들이 다른 집들과 더불어 우리 집을 태우기 위해 마을에 왔었던 때였다. 나의 형제 Leonardo와 여동생 Librada는 그 사건으로 인해 죽었다. 그 시간 동안, 집 밖에 나와 있었던 나의 아버지와 큰 오빠는 군인에게 고문을 당했다. 나는 나의 막내 여동생인 Lunita를 껴안고서 그 장면들을 보며 멈추지 않는 눈물을 흘렸다. 나의 어머니도 그 주변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와 나는 우리 집을 떠나 일본 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Isabela의 산 속의 피난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다. 얼마간이 지나고 우리는 안전하다고 생각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었다. 어느 날, 나는 마을에서 몇몇 나이든 여성들과 함께 강가에서 옷을 빨고 있었다. 나는 그때 13살이었다. 갑자기 일곱 명에서 아홉 명의 일본 군인들이 나타났다. 말을 타고 있던 한 장교는 그의 주하들에게 나를 그에게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다. 나는 저항했다. 내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그는 그의 총으로와 나의 머리를 때렸고 나는 정신을 잃었다. 나는 말의 등에 태워져 Isabela Santiago의 지방 자치홀에 위치한 일본군 주둔지역으로 옮겨졌다. 나는 깨어나 방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장교와 나는 단 둘이서 그 곳에 있었고, 장교는 나를 "Baby, Baby"라고 부르며 나의 다친 머리에 약을 발라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를 강간하기 시작했다. 나는 저항했지만 그는 나를 때렸고, 결국 그는 나에게 강제로 강간을 할 수 있었다.

나는 많이 울었고, 또 많이 아팠다. 나는 이런 끔찍한 운명을 겪어야만 할 일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지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며칠 동안 나는 일본 장교에게 성적인 봉사를 할 것을 강요당했다. 그는 항상 강간 후에는 마사지를 원했다. 8일째 되던 날, 나는 내가 도망칠 만큼 충분히 용감하다고 나 자신에게 이야기했다. 그의 잔악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고통 받느니 탈출을 시도하다 죽는 것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날 밤, 의식을 잃을 때까지 장교의 몸에 일격을 가했다. 닭이 울었던 것으로 봐서 2시 경이 되었다고 생각했다. 내가 문 밖으로 주의 깊게 걸어 나갔을 때 날은 아직도 어두웠다. 나는 건물 밖을 왔다 갔다 하는 몇몇 의 보초들을 보았다. 날카로운 철조망이 무릎에 닿을 때까지 걸었다. 그리고는 안전해 질 때까지 기다린 후,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갔다. 나는 집에 도착하기 전까지 6시간이 넘도록 걷고 뛰기를 반복했고, 어머니를 보자마자 우리는 슬프게 꼭 껴안았다. 어머니는 내가 2년 동안 쇼크 상태에 있었다고 몇 년이 지난 뒤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나의 트



라우마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했다. 나는 자주 악몽을 꾸었고 "안 되요, 안 되요, 난 싫어요."라고 소리치며 깨났다.

곧 전쟁은 끝났다. 아버지와 오빠가 돌아오면서 우리 가족은 다시 결합했고, 우리는 고향인 Nueva Ecija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나의 어머니는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와 오빠에게 결코 말하지 않았다. 엄마는 그것이 나와 엄마만의 비밀이라고 판단했다. 그것은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자신이 매우 수치스럽다고 느꼈고, 친구나 친척들과 더 이상 친해지지 못했다. 나는 항상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집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은 어머니가 나를 좋아했던 Dominador Reyes와 내가 결혼해야만 한다고 결정했을 때까지 계속 되었다. 나를 그를 거절했고, 심지어는 그가 나를 떠나도록 끔찍한 내 경험을 이야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그는 나를 많이 좋아한다고 말했다. 내 부모님은 Apong Doming(Dominador Reyes의 애칭)에게 좋은 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그와 결혼한 거라고 주장했다. 나는 그와 네 명의 아이들을 가졌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남편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이 일본 장교에게 강간당한 경험을 재현하는 것 같다고 말해야만 했다. 나의 트라우마 때문에, 1년이 넘도록 다른 여자들과의 관계를 탐닉한 것에 대한 변명으로 내 정신적인 상처를 이용했던 남편에게 계속해서 실망했다. 나는 그에게 집을 떠나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살았으며 이후 한 때 행복하게 살기도 했다.

내 얘기를 들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해가 감에 따라 죽음을 맞이하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주는 것을 돕기 위한 몇몇 온건한 방법들이 이끌어지길 바란다. 이 회의는 많은 딸들이 성노예로서 강제적으로 고통 받은 분단된 한국에서, 평화롭고 독립적인 재결합에 대한 꿈을 한 발짝 앞으로 내미는 기회를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나는 여러분들과 긍정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싶으며, 이 모임이 성공으로 끝을 맺길 바란다.

(번역 오영주)

## My Painful Experience of Wartime Japanese Sex Slavery Transformed My Life

Narrative of Lola Ammonita Balajadia,  
76 years old, Former Japanese Army's Sex Slave in WWII in the Philippines.

(For the Seoul Conference and Second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held in Seoul, Republic of Korea, May 20-23, 2004)

I am Lola Ammonita Balajadia, born on April 21, 1928. It was just last month that I celebrated my 76<sup>th</sup> birthday. On that day, forgetting it was my birthday, I applied for my visa to enable me to come to Seoul and participate in this conference. The Korean Embassy Political Counselor, Mr. Park, received Ms. Nelia Sancho and myself, and our companion, a journalist - Mr. Ricardo Malay, and was treated to a hearty lunch at the Dongwon Korean Restaurant in Makati City. I was also given chocolates that day.

I could not help but recall how my experience as a sex slave of the Japanese army, though painful and had given me deep anger towards the Japanese government, had also transformed my life today. Just after the war in 1945, I was in a state of shock for two years as a result of my earlier forced confinement as sex slave at a Japanese military garrison in Santiago, Isabela at the age of 13 years old. I was shamed by my wartime past and could not continue schooling. I wanted to end my life, and that was in my thoughts everyday of my life since that brutal garrison rape perpetrated by a Japanese officer.

In 1992, I went to approach the women's human rights group, AWHRC and its partner, Gabriela, and told them of my tragic experience. I wanted their support to recover my rights and affirm my dignity as a violated woman because of the Japanese wartime atrocity. Since 1992, I felt my world had changed - I met so many people who had sympathized with me during my travels to at least nine countries. I gave speeches and told and retold my story with the new thought in my head that by doing so, I could help change the world too and make it a better place to live for millions of girls and women.

War should end, rape and sex slavery should stop all over the worl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know about the atrocity of the Japanese army, our stories of wartime sex slavery euphemistically known as the "comfort women" should be heard and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ccountable. By recognizing its crimes sincerely and compensating its various victims, Japan can put closure to the case.

I have been empowered by my constant travels and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meetings. I feel good receiving so much support, friendship and solidarity from friends and people in various countries, including Japanese citizens. As I wake up each day, I feel so much gratitude and blessed to meet so many kind people, such as those in this meeting. The thought that comes into my head each day now, is how I would like to live longer and experience the happiness of being renewed with myself. Where before I was lost and wished that I would die each day of my life, today I feel so much reconnected with the



good within me, feeling such a wonder and happy with my self. It is not because there has been a solu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 no! We, the victims are still fighting for our just cause. But it is the wonderful reality that out of a war crime perpetrated by Japan, humanity has risen to the challenge. The support that I got from so many groups in the Philippines and other countries has warmed my heart and affirmed my belief in the human race. And I continue to hope that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for the Settlement Of Japan's Past will be another opportunity to express our will and determination to ease and overcome the pains of war by working together for justice. That way, humanity will be reminded that there are lessons to learn in every misery and atrocity committed in war. Sometimes, pain should be experienced so we do not take peace for granted.

Let me bring you the proposal from the Philippines – from the victims' group, Lolas Kampanyera and from the various supporting groups of the victims. It is a proposal that came from our persistent lobby work with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hilippine Senate. Our proposal is to hold a regular workshop and forum of the Asian legislators and parliamentarians to discuss the issues and policies for the settlement of Japan's war crimes. The venue can be rotated among various countries. The Philippines is willing to host one workshop – we will be partners with Philippine legislators in inviting the parliamentarians of other countries to hold a dialogue until a consensus for the settlement of Japan's past is achieved.

*And now let me share my story in full so that our pain is not forgotten, and we continue to share the lessons of a historical past to help us construct a peaceful present and a wonderful future for the human race.*

My life, as a young child, with my parents, Eladio Balajadia ( a farmer) and my mother, Felomina Lalu ( a public school teacher) was quite peaceful and happy. I was born in San Vicente, Cabiao, Nueva Ecija on April 21, 1928. I was the third of 13 siblings, but only six survived just before the war. During the war, three more died. Only three of us, myself and two brothers, are alive.

Just before the war broke out, my father decided that our family move to Santiago, Isabela where he was able to buy homestead land of 7 hectares planted to palay (rice) and farm additional 5-hectare land of tumanan and kaingin where he planted vegetables and fruits. Our family had enough food but despite this, I was not allowed to go to school by my mother who assigned me house chores including taking care of my smaller brothers and sisters, while she taught in school. So I never went to school though I wanted very much to become educated like my older brothers.

Then, December 1942 came. I was 11 years old when the Japanese army arrived to occupy the Philippines. The first cruelty my family experienced from the Japanese soldiers was when they came to raid and burn our village, along with other houses in the area. My brother Leonardo and sister Librada died as a result of that incident. During that time, my father and my eldest brother who were outside the house, were tortured by the

soldiers. I watched and cried helplessly as I cuddled my youngest sister, Lunita. My mother was around but couldn't do anything.

My mother and I decided to leave our house and seek refuge in the mountain of Isabela to be far from the Japanese troops. After sometime, we thought we were safe. But I was wrong. One day, I was washing clothes in the river along with some older women in the area. I was 13 years old at that time. Suddenly, a group of 7-9 Japanese soldiers appeared. An officer on horseback ordered his men to bring me to him. I resisted. As I came near him, he hit me on the head with his gun and I fell unconscious. I was taken on horseback to the garrison located at the municipal hall of Santiago, Isabela. I woke up and saw myself already inside a room. The officer was there alone with me, calling me "Baby, Baby" as he put medicine on my wounded head. Then he started to rape me. I struggled but he slapped me and eventually, he was able to force himself on me.

I cried so hard, and felt so much pain. I asked myself what I did in the past to deserve this terrible fate. For several days, I was forced to serve sex to the Japanese officer. He always wanted a massage to be followed by rape. On the eighth day, I told myself I was brave enough to escape. I thought I would rather die attempting to escape than continue suffering his cruelty. That night, I stroked the officer's body till he fell asleep. As I heard the rooster crowed, I thought the time must be around 2 AM. It was still dark as I carefully stepped out of the door. I saw several guards walking up and down outside the building. I walked on my knees until, reaching the barbed wire fence, I crawled under it until I reached safety. It must have been more than six hours of running and walking before I reached home, and as soon as I saw my mother, we tearfully locked in an embrace. My mother told me years later that I went into a state of shock for two years. She thought my trauma was so severe. I would often have nightmares and wake up shouting, "No sir, no sir, I don't like it".

Soon after, the war ended. Our family got reunited, my father and brother returned and we all decided to return to my birthplace of Nueva Ecija. My mother never told my father and brother what happened to me. She decided it would be a secret between the two of us. It was a silence that mostly stayed with me for more than 50 years. I felt so ashamed of myself, I never socialized anymore with my friends or relatives. I would stay in the house all the time, feeling sad and bitter. Until the time that my mother decided that I should get married to Dominador Reyes, who was attracted to me. I refused him, and even told him my horrible experience so he would stay away from me.

But despite this, he said he cared a lot about me. My parents insisted that I got married to Apong Doming (his nickname) as he had many good qualities. I had four children with him. But I must say having sex with my husband was like reliving the rape experience with the Japanese officer. Because of my trauma, I constantly disappointed my husband who used this as an excuse to indulge himself with sex with another woman for more than a year. I asked him to leave the house but he wouldn't. We continued to stay together and later lived peacefully once again.



Thank you for listening to my story which I hope will lead in some modest way to help bring justice to the comfort women whose ranks are being depleted with death each passing year. May this be an opportunity to bring the divided nation of Korea, where many of its daughters were forced to suffer the supreme punishment of sexual servitude, a step closer to its dream of peaceful and independent reunification. I share your optimism that this gathering will be crowned with the success it so richly deserves.

## 증언 " 트럭에 실리어 《랍치》

정운모 (강제연행피해자)



- 1921년 11월 충청북도 청주군에서 출생. 현재 일본 지바현 지바시에 거주.
- 1942년 2월 일본 도찌기현의 후루카와광업소 아시오동산에 연행 됨.
- 1993년 5월 강제연행피해자로서 처음으로 유엔인권소위원회 현대노예제작업부회에서 증언함. 이후 유엔에서는 조선인강제연행을 《노예류사관행》이라고 규정함.
- 1997년 5월 일본변호사련합회에 인권구제신청.
- 2002년 10월 일본변호사련합회는 고이즈미수상에게 강제연행피해의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권고 함.

지금도 고향의 충청북도 청주에서 헤어진 어머니의 얼굴을 잊을수 없어 잠들지 못하는 밤이 있다. 1942년 2월 18일이였다. 갑자기 면사무소에서 호출을 받아 《너 일본에 가서 2~3년 일해 와》라고 말들었다. 17살때 집안의 기둥인 아버지를 잃은 정씨 일가는 곤궁해 있었다. 형은 품팔이하러 가고 누나는 시집에 가서 정씨는 어머니와 두명살이였다.

《어머니를 돌보지 않으면 안된다》고 딱 잘라 거절한 순간 《이놈 자식, 나라가 아닌가》고 뺨을 후려갈기였다.

어머니를 모시고 도망치려고 바쁘게 집으로 뛰어갔으나 벌써 늦었었다. 아시오동산의 갱내부장이나 면사무소의 공무원등 4명이 집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강제적힘으로 정씨를 잡아 트럭에 실었다.

청주에서 부산, 시모노세끼에로 기차로 도찌기현의 아시오동산에 연행당한 과정은 말그대로 《랍치》였다. 무엇보다 괴로웠던것은 어머니를 혼자 두고 온것이였다. 자책하는 마음은 지금도 사라지지 않는다.

절단될번한 왼발, 《3전짜리 조선인》

왼발에 남는 상처자국이 가혹한 로동생활을 말해준다.



매일 아침 6시에 마구 흔들어 깨워져 50키로의 짐을 짊어져 실어서 걸어서 또 걸었다.공기가 나쁘고 몸상태가 나빠져서 2,3 일 일을 못할때가 있었다.회사측은 가짜병을 했다고 구두바닥에 쇠장식이 있는 구두로 호되게 찼다.

아시오동산은 24 갱나 있는 대규모의 광산으로 1 갱의 간격은 수백미터를 넘는 다.짐을 짊어져 《게이지》(승강기와 같은것)을 타거나 사다리를 건너 오르내리거나 한다.

어느날 도구를 등에 지고 사다리를 올라 탄 순간에 다리를 잘못 디디여 밑에 떨어졌다.운수 좋게 떨어진곳에 멍석이 깔려 있어 생명은 건졌지만 왼발은 뼈가 부러졌다.의식을 되찾았을때는 병원에 실려 있었지만 왼발에는 상처자국이 있었다. 발이 절단될번 했다.

락반하여 죽은 동포의 조상도 하지 않고 매장하려고 한 사실을 폭로하려고 하니 회사에 있어서 《눈에 든 가시》였고 그 자들은 《발을 절단해서 본국에 돌리려고 했다》.

자주 조장들에게 반발한 정씨는 종종 린치를 당했다.목도로 힘껏 후려치는 조장 《야마모토》의 욕설이 지금도 귀전에서 사라지지 않는다.

《너들 한놈,두놈 뉘저도 아무렇지도 않아.3 전만 있으면 너들같은것 수백명,수천명 데려올수 있어》

《우표 1 장이 3 전.봉투에 3 전짜리 우표를 발라 조선인사냥을 해냈어.》 2 년에 이르는 강제로동의 나날은 《죽음과 맞서고 있었다》.

년에 수심회 강연, 《힘을 주는 청중》

자신의 체험을 남들앞에서 이야기하게 된지 20 년이 된다.같은 지바현에서 사는 일본인 교직원이 《강제련행의 실태를 알고싶다》고 찾아 온것이 시작이었다. 지금은 년에 수심회의 강연을 해낸다.

미에현에서 1000 명을 넘는 교직원들앞에서 이야기했을때의 일이다.연단에서 내리자 수명의 교원들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달려와 《잘 살아 남으셨습니다》고 정씨를 껴안았다.정씨의 두볼에도 뜨거운것이 흘러 내렸다.

강연마당에서 일본인의 량심과 마주 향할때마다 아시오동산에서의 도주를 도와 준 조장의 이씨가와씨를 회상한다.《일본인에게 괴롭혀 일본인에게서 살려졌다》.

유엔에서 2 번이나 발언하고 일본정부와 고가고우잔(고가광산)(현재 고가기계금속에 공식사죄를 요구하여 일본변호사련합회에 인권구제청구를 하였다.《오직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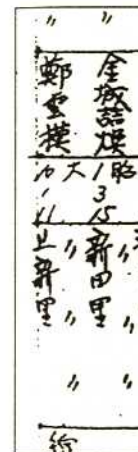
조일량국의 국교는 서로를 신뢰하고 믿지 않으면 실현되지 않을것 이 다고 말한다.

《그 신뢰관계가 있을가.일본에는 가해자의 입장에 서서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는 사죄를 요구한다》

숨지는 순간까지 증언을 할 마음이다.《청중이 주는 힘》이 견고한 의지를 떠받친다.

(조선신보의 취재기사를 번역함.박금회)

회)



1946년에 일본정부가 작성한 명부에는 정운모(鄭雲模)라고 본명이 기록되어 있다.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공개명부 50번에서 )

※관련자료

-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자료집 14 《조선인강제련행·강제로동 일본변호사련합회 권고와 조사보고서》(2002. 12. 우리말, 일본말, 영어)
-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단 편저 《조선인강제련행조사의 기록-간또편 1》 증언편 303페이지 (2002. 16. 일본말, 가시와서점)



## トラックに乗せられ「拉致」

栃木・足尾銅山で強制労働  
鄭雲模さん(千葉県在住、78歳)



謝罪なくして生まれぬ信頼  
生き別れの母、今もまぶたに

### トラックに乗せられ「まさに拉致」

今でも故郷の忠清北道・清州で別れたオモニの顔が忘れられず、寝付けぬ夜がある。1942年2月18日のことだった。突然、面事務所から呼び出しを受け、「お前、日本に行つて2〜3年働いてこい」と言われた。17歳の時に大黒柱である父親を失った鄭さん一家は困窮していた。兄は出稼ぎに行き、姉は嫁ぎ、鄭さんは母と二人暮らしだった。

「母の面倒を見なければならぬ」とつぶねた瞬間、「このヤロウ、テメーの国じゃないか」とピンタが飛んできた。

オモニを連れて逃げようと大急ぎで家に帰ったが、すでに遅かった。足尾銅山の坑内部長や面事務所の役人ら4、5人が家の周りを囲んでいた。カズクで鄭さんをつかみ、トラックに乗せた。

清州から釜山、下関へ。汽車で栃木県の足尾銅山へ連行された過程は、まさに「ら致」だった。何より辛かったのは、母一人を置いてきたことだった。自責の念は今も消えることがない。

### 切断されかけた左足、「3銭の朝鮮人」

左足に残る傷跡が、過酷な労働生活を物語る。

毎朝6時に叩き起こされ、50キロの荷物を背負い運び歩き続けた。空気が悪く、体調を崩し2、3日仕事に出られないことがあった。会社側は、仮病を使ったと底に金具のある靴でさんざん蹴りつけた。

足尾銅山は24坑もある大規模の鉱山で、1坑の間隔は数100メートルを超える。荷物を背負い、「ゲージ」(エレベーターのようなもの)に乗ったり、はしごをつたって上り下りする。

ある日、鄭さんは、道具を担いではしごを上がり切った瞬間に、足を踏み外して下へ転落した。運良く、転落したところにむしろが敷いてあったので、命はとりとめたが、左足を骨折。意識を取り戻した時には病院に担ぎ込まれていたが、左足に傷跡があった。足を切断されそうになったのだ。

落盤で死んだ同胞を弔いもせず、葬ろうとしたことを暴露した鄭さんは、会社にとって「目の上のたんこぶ」だった。だから「足を切断して本国に帰そうとした」。

よく組長らに反発した鄭さんは、たびたびリンチを受けた。木刀で力いっぱい殴り付ける組長「山本」の罵声が、今も耳から消えない。

「テメーら、1匹や2匹くたばつたってどつたことねーや。3銭もあれば、テメーら何百人、何千人と引っ張つてこれるわ」

「切手1枚が3銭。封筒に3銭の切手を貼つて朝鮮人狩りができた」。2年に及んだ強制労働の日々は「死と向かい合わせだった」。

### 年に十数回講演、「元気になる聴衆」

自分の体験を人前で話すようになって20年になる。同じ千葉に住む日本の教職員が「強制連行の実態を知りたい」と訪ねてきたのが始まりだった。今では、年に十数回の講演をこなす。

三重県で、1000人を超す教職員の前で話した時のことだ。演壇から降りると、数人の教員たちが大粒の涙を流しながら駆け寄り、「よく生き残られた」と鄭さんを抱き締めた。鄭さんの頬にも熱いものが伝ってきた。

講演の場で日本人の良心に向き合うたびに、足尾銅山からの逃亡を手伝ってくれた組



長の石川さんを思いだす。「日本人に苦しめられ、日本人に救われた」。

国連でも2度発言し、日本政府と古河鋳業(現古河機械金属)に公式謝罪を求めて日本弁護士連合会に人権救済の申し立てをした。「ただただ、人間としての尊厳を取り戻したかった」。

朝・日両国の国交は、お互いに信頼し、信じ合わないと実現できないのではないかと語る。

「その信頼関係があるだろうか。日本には加害者の立場に立って、心からわき起こる謝罪をしてほしい」

命尽きるまで証言を続けるつもりだ。「聴衆がくれる元気」が、強固な意志を支える。(張慧純記者)



解放から50数年。いまだなされない日本の「過去清算」が、同胞被害者の人生をどのように振り回してきたか。朝・日国交正常化交渉が再開された今、被害者の痛みや声をもう一度見つめる。

#### 強制連行とは？

一般的に、強制連行とは本人の自由な意思に反する肉体的、精神的強制による移動形態を指す。強制労働、「従軍慰安婦」、軍人・軍属として連行された被害が含まれる。日本政府も「従軍慰安婦」問題に対する国会答弁で、強制連行の定義について「物理的に強制を加えるのみならず、脅して本人の意思に反してある種の行為をさせた場合も含む」(1993年3月23日)と認めている。

当時の日本政府は、1938年4月に公布された「国家総動員法」に基づいて、「国民徴用令」を翌年7月に施行し、強制連行を開始した。強制連行の動員計画は「募集」(39年9月～42年1月)、「官斡旋」(42年2月～44年8月)、「徴用」(44年9月～45年8月)の3段階に分け実行された。日本では炭坑、鋳山、軍需工場、港湾、飛行場建設、鉄道、道路工事、ダム建設などに連行した。

強制連行者数は朝鮮国内で460万人、日本国内で150万人をそれぞれ超え、合計600万人以上にのぼる(大蔵省管理局「日本人の海外活動に関する歴史的調査」など)。

敗戦時に日本政府や軍が、証拠いん滅のために資料を消却したことが、真相究明を困難にしている。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발표자: 남한

· 별지



## ◆ 일본군 '위안부' 문제

- 발표자: 북한 조대위 홍선옥(위원장)
- 일본군 '위안부' 제도와 조선반도

지난해 9월 중국 상해에서 결성된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회의 회의가 오늘 제2차회의를 성과적으로 개최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면서 회의성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는바입니다.

20세기 일본에 의해 저질러진 참혹한 중대인권유린범죄들이 제대로 심판되지 않은채 세기를 넘어 벌써 60년을 가까이 하고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아시아피해각국의 관련단체들과 활동가들, 피해자들의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력사의 흑막속에 묻혀있던 일본의 반인륜범죄행위들의 진상이 일정하게나마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엔인권위원회와 국제로동기구를 비롯한 권위있는 국제기구들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연구와 보고를 통해 일본의 과거인권유린범죄들의 국제법적위법성과 국가적책임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었으며 일본정부가 그 책임리행을 위한 실천적조치를 취할것을 요구하는 강력한 권고도 여러차례 나왔습니다.

그러나 일본당국은 국제기구들의 거듭되는 권고와 피해자들의 요구에 로골적인 무시와 랭대로 대응하면서 저들의 범죄를 씻으려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있으며 어떻게 해서나 과거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끈질기게 책동하고있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 나라를 무력으로 불법강점하고 전대미문의 포악무도한 식민지군사통치를 실시하면서 조선인민에게 강요한 불행과 고통을 생각할때 이것은 너무도 파렴치하고 오만한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수자를 헤아리는 경제적착취와 문화재략탈은 말할것도 없고 혹심한 정치적박해와 로동력수탈, 민족정신말살 등 조선민족이 입은 인적, 물질, 정신적손실은 인류력사에 전무후무한것이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자기나름의 취미와 의사에 따라 선택하게 되는 옷차림과 머리단장, 생활방식에서까지 인간의 초보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고 840만의 조선청장년들을 강제로 랑치런행하였으며 100여만을 학살하고 근 20만의 조선녀성들을 《황군》의 성노예로 끌여가는 등 일제가 저지른 수다한 인권유린행위는 인류력사에 존재한 모든 범죄행위들을 훨씬 룡가하는 특대형의 반인륜범죄인것입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제가 수많은 악법들을 조작개정해가면서 합법화, 조직화, 제도화하여 감행한 이 인권유린행위들이 대부분 집단적인 학살과 랑압, 살인적인 고역을 동반한것으로써 민족멸살이라는 엄청난 목적을 추구하였다는것입니다.

특히 일제는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최대한 리용하여 조선녀성들을 대량적으로 분산와해 및 살해하며 산아능력을 파괴함으로써 조선민족의 증가를 억제하고 종당에는 통채로 없애버리려 하였습니다.

이로부터 일제는 중일전쟁 훨씬 이전시기부터 조선반도 각지에 일본군 《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조선녀성들을 저들의 성노예로 만들었으며 《위안부》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가는데서도 조선을 주요한 《위안부》공급원천지로 삼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일본군 《위안부》제도실행에서 조선이 어떠한 위치와 역할을 강요당하였는가에 대해 몇가지로 언급하고자 합니다.



## 1. 조선반도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실시의 시범단위

이미 8세기이전부터 창녀들이 출현하여 16세기에 공식 유곽을 설치한 일본에서는 추업이 당당한 업종으로 번성해왔으며 그의 해외진출도 적극 장려되어왔습니다.

메이지시대 유명한 학자였던 후쿠자와 유키치가 《일본인민의 해외이주 식민사업의 발전에 따라 단신으로 부임하는 남성에게 쾌락을 주기 위해 창부가 필요하다》, 《해외 각지에 주둔하는 병사의 기를 화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부가 필요하다》고 말한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남성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경우 그를 위한 창부를 파견하는것이 필수적이고 용당한것으로 간주되어왔습니다.

더우기 1918년 씨비리출병시 수천명의 일본군인들이 문란한 강간행위로 성병에 감염되어 전투력이 크게 약화되었던 쓰디쓴 경험에서 일본군부는 군인들의 성욕처리를 위한 전용 《위안시설》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이로부터 방대한 일본군이 상시적으로 주둔해있는 조선반도에서는 일찍부터 일본군전용의 《위안소》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1904년 로일전쟁을 일으키고 10여만에 달하는 방대한 침략무력으로 전조선반도를 점령한 일제는 로일전쟁이 끝난후에도 무력을 철회시키지 않고 계속 주둔시키면서 이를 배경으로 조선의 주권을 강탈해냈습니다.

1916-1919년에 일본군 제19사단과 제20사단으로 이른바 《조선군》을 편성하여 조선의 방방곡곡에 수만명의 침략군을 고착배치한 일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조선통치의 실력적요소》를 강화한다고 하면서 무력을 계속 증강하여 1936년 8월말까지 7개사단에 해당하는 병력을 주둔시키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태평양전쟁말기까지 조선반도에는 무려 29만 4천여명에 달하는 일본군이 주둔해있었으며 이외에도 수십수백만에 달하는 일제침략군이 조선반도를 통과하여 전선으로 파견되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는 조선인민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위하여 조선에 그물같은 헌병,경찰망을 꾸려놓았는데 1910년 9월에 1만 6,840명의 헌병경찰이 있었다면 1922년에 와서는 헌병을 제외한 경찰만 하더라도 2만 772명에 달하였습니다.

일제는 장기간의 해외주둔과 침략전쟁에 시달려 거칠어지고 타락한 이 수십만의 일본군인들을 《위안》하기 위하여 조선각지에 군《위안소》들을 설치하고 조선여성들을 성노예로 만들었던것입니다.

최근년간 우리 나라의 함경북도에서 이전 일본군《위안소》건물들이 편이어 발견되었는데 특히 2002년에 라남구역에서 발견한 풍골《위안소》는 일제의 조선주둔 라남제19사단이 리용한것으로서 1920년대말에 설치된것으로 보아집니다.

여러동의 《위안소》와 함께 진료소, 목욕탕까지 갖춘 이 《위안소》부락은 외형상 일본민간인이 관리하는것으로 되어있었으나 실지로는 군부에서 그 감독,통제를 맡아하였습니다.

당시 이 《위안소》부락에서 잡일을 하던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풍골《위안소》는 라남제19사단의 위수구역안에 설치되어 있어 일반사민들의 출입이 드물었으며 《위안소》입구에 파출소를 설치하고 헌병들이 엄격히 감시하였다고합니다.

또한 1주일에 한번씩 룡군병원 군의들이 직접 와서 《위안부》들에 대한 성병검진을 하였으며 병에 걸린 여성들은 룡군병원에 후송하였다고합니다.

여기에 끌려와있던 《위안부》들은 대체로 15-30살정도의 조선여성들로서 모두가 《직업알선》,《돈벌이》편입에 속아 끌려 온 여성들이였습니다.

1920년대에 일본군《위안소》는 조선주둔 경성제20사단의 관할지역인 경상남도 창원군에도 있었습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리경생은 12살나던 1929년에 마을 구장이 끌고 온 일본헌병에 의해 창원군에 있는 군수공장에 끌려가 공장구내의 《위안소》에서 일본군인들을 상대로 성봉사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일본군은 그가 16살 나던 해에 임신을 하자 수술하여 태아를 없애버리었을 뿐만아니라 다시는 임신하지 못하도록 자궁까지 들어냈습니다.

또한 피해자 정옥순도 1934년부터 량강도 혜산에서 일본군《위안부》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조선에 설치된 《위안소》들에서 벌써 정기적인 성병검진을 실시하고 헌병들과 경찰들이 《위안소》를 감시, 통제하였으며 구장과 같은 행정단위의 책임자들이 《위안부》련행에 관여하였습니다.

또한 이곳의 《위안부》들 역시 하루에 수십명의 군인들을 치르면서 대가란 전혀 받지 못했으며 임신을 하면 강제로 수술당하고 반항하면 목숨을 빼앗기는 등 인간이하의 가혹한 학대와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제반사실들은 조선반도에서 일본군《위안소》가 매우 이른시기부터 설치운영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제도적행위로서의 명백한 성격과 체계를 갖추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이것은 조선반도가 일본군《위안부》제도의 발원지, 그 시범단위였다는것을 말해주고있습니다.

일제는 1932년 상해사변 훨씬 이전시기부터 조선반도에서 일본군《위안소》들을 설치운영하면서 군《위안부》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확인하고 그를 보충완성해나갔으며 여기서 얻은 경험에 기초하여 《위안부》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해나갔던것입니다.

## 2. 조선반도는 일본군《위안부》의 공급원천지

일본군《위안부》제도를 유지확대해나가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역시 《위안부》원천이였습니다.

일제는 그 인적원천지로서 바로 저들의 파쇼독재의 활무대로, 무제한한 착취와 억압의 대상으로 되고있던 조선반도를 택하였던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당시 일제는 우리 나라를 강점하자마자 서울에 《경무총감부》를 두고 13개 도에 도 《경무부》, 매개 군과 면에는 물론 주요 지점들에까지 헌병대 및 경찰서, 헌병 및 경찰파출소를 수천개나 설치하였는데 1923년에 벌써 5,543개의 경찰 및 헌병기구망이 가동하면서 조선인민의 일거일동을 엄격히 감시통제하고있었습니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경찰즉결제》를 조작하여 경찰들에게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자들을 자의대로 즉시 처분할수 있는 특권을 주었으며 《조선형사령》과 《태형령》, 《태형집행요령》, 《정치에 관한 범죄처벌의 건》을 비롯한 각종 폭압법규들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인민을 다치는대로 탄압처형하였습니다.

일제가 파쇼악법과 폭압기구들을 동원하여 감금한 조선인이 1918년에는 447만 8,873명이였다면 1919년에는 574만 6,597명, 1922년에는 583만 6,643명에 달하였습니다.

1930년현재 조선에서 형무소 1평방당 평균 재감인원이 3명이였는데 같은 시기에 일본이 0.4명, 대만이 0.5명이였다는것을 고려해볼때 조선인민에 대한 일제의 폭압체제가 얼마나 가혹한것이였는가 하는것을 잘 알수있습니다.

일제의 이러한 파쇼적폭압속에서 조선반도는 말그대로 철창없는 감옥, 인권불모지로 화하였으며 조선인민에게는 인간으로서의 그 어떤 권리도, 존엄도,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오직 일본제국주의에 복종할 의무만이 강요되었습니다.

더우기 일제의 가혹한 경제수탈정책으로 조선인민의 생활에서 빈궁화가 촉진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특히 농촌에서 류랑결식자와 빈농민, 형세민이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여성들을 손쉽게 그리고 다량적으로 끌어갈수 있는 유리한 조건으로 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풍부한 《위안부》원천지에서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 《녀자정신대근로령》을 비롯한 파쇼악법을 휘두르며 헌병과 경찰, 현역군인, 사기협잡군까지 총동원하여 수십만의 조선여성들을 《황군》의 비참한 성노예로 끌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우리 나라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박영심은 중국을 방문하여 60여년전 자기가 일본군성노예로 끌려 다닌 남경과 운남의 《위안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다싶이 박영심피해자는 그 피해실태를 립증해주는 객관적인 문서자료들과 사진, 증거물, 그를 목격한 증인이 현존해있는 유일한 피해자입니다.

지금도 중국의 강소성 남경시 리제항에는 박영심이 《우파마루》로 불리우면서 치욕스러운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한 《위안소》건물이 60여년전 그대로 남아있으며 운남성 동충현 송산에는 굶주림과 공포, 출혈의 고통으로 수무천가에 쓰러져있는 그를 구원해준 리정조로인이 건재해있습니다.

박영심은 17살나던 해에 일본군에게 련행되어 중국의 남경과 마니마의 라시오, 다시 중국 운남성 송산의 최전연으로 끌려다니며 1944년 9월까지 성노예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박영심의 발자취를 따라 중국의 여러곳을 찾는 과정에 우리는 남경은 물론

운남성 동충현의 유등촌과 화순화교촌, 룡릉현, 보산시 등 이르는곳마다에서 조선여성들이 끌려와 있던 일본군 《위안소》건물들을 볼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문서들과 피해자들의 증언에서 조선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간 지역으로 밝혀진 곳은 조선에서 경흥, 웅기, 혜산, 라남, 함흥, 풍산, 부산, 인천, 창원이며 중국에서 홍콩, 마카오, 베이징, 상해, 남경 광둥, 장춘 등 50여개지역, 일본에서 오키나와, 오사까, 히로시마, 구마모또, 아오모리, 시즈오까, 와카야마, 나고야, 홋카이도 등 10여개지역, 인도네시아에서 수마트라, 수라바야, 자바섬, 할마헤라, 마니마의 양곤, 라시오, 미토키나, 대만의 기룽, 장화, 기고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싸할린, 몽골, 캄보쟈, 인도, 필리핀, 브르네오, 파푸아뉴기니아, 구릴렬도, 사이판섬, 람도, 니고바르 등으로서 그야말로 일제침략군이 전개된 모든 전선과 주둔지역을 다 포괄하고있습니다.

아시아 여러 나라들에 수많은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있지만 조선여성들처럼 일제침략군의 발길이 미치지않던 모든 지역에 대규모적으로 끌려간 이는 도저히 찾아볼수 없습니다.

일제는 군부와 행정당국안에 세워진 정연한 체계와 보급경로를 따라 조선여성들을 저들의 전선각지와 주둔지로 분산배치하면서 모자라는 《위안부》들을 현지의 여성들로 충당하였던것입니다.

조선반도가 일본군 《위안부》공급원천지였다것은 일제가 조선여성들을 상대로 일본군에 대한 《위안》을 강요하는 성교육을 진행한데서도 찾아볼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평안남도 평성시에서 살고있는 누총녀는자신이 겪은 체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습니다.

《나는 1944년부터 광복될때까지 평안남도 평원군 검산면에 있던 학교에서 《호출장》을 받은 마을처녀 20여명과 함께 일본어와 간단한 부상병처치법, 제식동작을 비롯한 군사훈련을 받았으며 이때 남녀간이 성교를 하는 방법을 교육받았다. 놈들은 부끄러워하는 우리들에게 일본병사들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며 병사들이 요구할때에는 서슴없이 몸을 바쳐야 한다고 하면서 여러가지 성교방법과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가르쳐주었다.》

누총녀의 체험은 일제가 임의의 시각에 조선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동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황군》의 요구에 무조건 복종하는 정신을 강제주입시켰으며 이 사업을 전시동원을 위한 교육시설들에서 공공연히 진행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고 수백만의 조선남성로력을 징병과 징용으로 끌어간 일제는 여성들마저 전쟁마당으로 끌어내기 위하여 1943년에 《녀자학도병》과 《녀자정신대》동원을 결정하고 1944년에는 《녀자청년특별련성소》를 개설하여 여성들에게 필요한 훈련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호원양성소와 같은 교육시설들을 꾸려놓고 조선여성들이 전쟁마당에 나가 《황군》을 위해 부무하도록 부상병간호법과 제식훈련 등을 강요하였는데 누총녀는 바로 이 간호원양성소에서 성교육을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성교육을 함에 있어서도 일제는 《천황》과 《대의명분》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절도 서슴없이 바쳐야 한다는 반동적인 일본식성문리를 체계적으로 주입하여 그들이 일본군의 성적강탈을 용당하고 숙명적인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려 하였습니다.

일제가 조선여성들에게 군사훈련을 준다고 하면서 성교육을 배합한데는 그들을 간호부와 같은 로무자로 사용하면서도 필요하면 어느때든지 《위안부》로 전환시켜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으려한 교활한 타산이 숨어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실지로 피해자들중에는 처음에 간호부를 하다가 《위안부》로 넘겨지거나 간호부가 되는줄 알고 속히워 끌려간 례가 적지않으며 또한 낮에는 일본군의 잡일을 하고 밤에는 병사들을 대상으로 성봉사를 강요당한 피해자들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간 여성들은 근 20만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살아돌아온 여성들은 그의 몇백분의 1도 되지 않으며 그마저도 《위안소》에서 도망치거나 전쟁의 혼란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일제는 저들 병사들의 건강을 위하여 성병대책은 세우면서도 《위안부》들의 건강이나 생명은 안중에도 두지 않았으며 정황이 위급해지면 《위안부》들을 보호한것이 아니라 가차없이 소멸처리해버렸습니다.

일본군 《위안부》제도를 통하여 조선민족말살을 추구한 일제에게 있어서 조선인 《위안부》들은 사용이 끝나면 모두 처분해버릴 소모품에 지나지 않았던것입니다.

### 3. 우리 나라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현황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이 짓밟힌 존엄과 명예를 회복시켜 줄것을 요구해나선때로부터 10여년이 흘렀습니다.

그때는 60대-70대이던 피해자들이 이제는 모두 70대-80대가 되었으며 더우기 가슴아픈것은 수많은 피해자들이 원한을 풀지 못한채 세상을 떠난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공개증언에 나섰던 피해자들중 60%가 이미 사망하였으며 생존해 있는 피해자들도 태반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원은 일본정부로부터 똑똑한 사죄와 보상을 받아 내어 가슴속에 쌓이고 쌓인 원한을 풀고 수치와 혐오감에서 벗어나는것입니다.

그러나 10여년이 지나도록 피해자들이 받은것은 사죄와 보상이 아니라 거듭되는 모욕과 배척뿐이며 이것은 그들에게 정신적고통을 더해주고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세상을 떠난 우리 나라 피해자들의 사망원인가운데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것은 뇌출혈을 비롯한 뇌질환과 암 등의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1993년 7월에 사망한 리복녀와 1995년 5월에 사망한 김복순, 1998년 3월에 사망한 윤경애와 2000년 4월에 사망한 리경생의 사망원인이 모두 뇌질환이었으며 1993년 5월에 리현숙이 유선암으로, 1998년 2월에 리

춘화가 자궁암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살아있는 피해자들 가운데서도 박영심이 여러해전에 뇌혈전을 앓았으며 광근녀는 지난해에 자궁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성으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수치와 모욕을 당하였다는 정신적고통이 발병의 근원으로 되고있으며 또한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태도가 피해자들의 생명을 줄이고있다는것을 용변으로 말해주고있습니다.

2000년에 뇌혈전으로 사망한 리경생은 립종을 앞두고 자신의 일생을 망쳐놓은 일본에게서 단 한마디의 사죄도 듣지 못하고 가는것이 원통하여 눈을 감지 못하겠다고 몇번이나 외웠다고합니다.

또한 1998년 12월에 사망한 정옥순은 자기가 죽은 다음에라도 일본이 사죄하고 보상을 하면 자기 무덤에 와서 알려 달라는것을 유언으로 남겼다고합니다.

지난해말 함경남도 라남구역에서 살고있는 김철순이 자기의 일본군성노예피해를 공개해나섰습니다.

김철순은 16살에 중국 봉천(지금의 장춘)에 있는 일본군부대에 끌려가 《위안부》생활을 강요당하였습니다.

3년동안의 《위안부》생활과정에 뇌타박으로 한쪽눈이 실명되고 자궁이 파열되는 등 폐인이 되다싶이 한 그는 생의 많은 시간을 병원침대에서 보냈습니다.

특히 그의 왼팔 옷부분에는 《스미노》라는 《위안소》경영자의 이름이 크고 선명하게 입목되어 있는데 그는 이것때문에 일생 팔을 드러낸 옷을 입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올가봐 항상 신경을 쓰면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되었다고합니다.

그는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과거를 밝히지 않고있던 자기가 어떻게 되어 이제와서 공개증언에 나서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지난 시기 나는 여러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나의 과거를 공개할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공개했잖아 일본이 저렇게 아무런 사죄와 보상도 하지 않고있는데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차라리 말하지 않는편이 더 낫다하는 생각에서였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이 〈위안부〉력사를 화장실력사라고 하더니 요즘은 우리 나라를 〈범죄국〉로 몰아대면서 마치 저들이 무슨 큰 피해자이거나 한듯이 떠들어대는것을 보고는 분통이 터져오는것을 도저히 참을수 없었다. 도대체 일본이 누굴더러 범죄자라고 하는가.》

그의 말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과거청산을 회피하고있는 일본당국의 파렴치한 처사는 피해자들에게 분노와 울분을 덧쌓아주고 있으며 더우기는 아직 과거를 공개하지 않고있는 사람들의 입을 봉하게 하는 근본원인으로 되고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일본이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지 않는한 자신이 당한 수치와 모욕은 벗겨지지 않으며 자신들은 영원히 더럽혀진 녀자로 남아있을것이라고 여기



고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당국의 책임 회피 - 이것은 곧 피해자들에 대한 또 다른 가해행위로서 지금 이로부터 새로운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

청산되지 않은 범죄는 새로운 피해를 낳고있으며 리행하지 않은 책임은 또 다른 범죄의 근원으로 되고있습니다.

일본당국이 하루빨리 자기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리행할때만이 범죄의 악순환을 끝장내고 피해자들을 고통의 나락에서 구원할수 있습니다.

더우기 피해자들에게 남은 생이 이제는 시간을 다루고있습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력사 앞에, 정의앞에 빚진 마음으로 살게 될것입니다.

저는 이번 회의에서 일본당국을 과거청산의 마당에 끌어내여 피해자들의 천추의 한을 풀어주고 그들의 자존심과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대책들이 토의되기를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려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과제에 대해 - 기억의 보존과 국제 연대의 관점에서 -

니시노 루미코

「전쟁과 여성에 대한 폭력」 일본 네트워크 공동대표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인권기금」 이사장

「무력이 아닌 평화적 해결을!」이라 호소하는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를 누르고, 「반테러」의 미명 하에 정당성을 내세워 시작되었던 이라크 전쟁은, 부시 대통령에 의한 전쟁 종결 선언으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대량 파괴 병기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쟁의 대의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열화 우란탄에 의한 피해와 파르자 시민 학살, 이라크 인권포로학대 등의 그 무서운 실태가 밝혀지고 있다.

이번 달에 들어와 발견된 아브그레이브 형무소에서의 이라크 포로학대에 대해, 적십자국제위원회(ICRC)는 1년전부터 미국에 경고하고 있었다. 미군은 학대가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이 발각될 때까지 모른 채하고 있었다. 문제가 되어지자 「일부 병사가 한 것이다」며 조직적 범행이었다는 것을 부정했으나 학대가 CIA의 명령이었다는 것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최근, 여성 포로에게 강간을 포함한 학대가 행해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군뿐만 아니라 영국군도 학대를 하였다고 하는데,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지금도 미군이 공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전쟁이 시작되자, 특히 바그다드에서는 미, 영군에 의한 강간 사건이 다발했다. 피해자중에는 일곱 살 소녀도 있다. 그러한 사태에 대하여, 이라크 여성 의사등 현지의 여성 단체는 「강간에 항의하는 이라크 여성 연합」 결성하고, 성폭력 조사를 했다. 그 결과 바그다드를 중심으로 미성년자 87명, 성년 여성 105명의 강간 피해가 밝혀져, 이들의 조사 보고서는 작년, 리스트와 자료가 모두 유니세프와 '세계 의사단'을 통해 미군에게 송부되었는데, 미군은 여전히 그 사실을 공표하지 않고 있다.

\* 「기억의 보존」

「위안부」 제도하에서 조직적 성범죄가 팽만했던 전쟁 이후, 세계에 전쟁이 끊기는 일없이, 전시 성폭력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이 그러하듯이, 고문시의 강간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있었던 일이었다. 비르마 군사정권하에서 SPDC(「국가 평화발전평의회」)가 여성에 대한 고문으로서 강간을 했었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억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과거 10년, 강간은 적대하고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상을 입히는 무기로, 전술화, 전략화되어왔다. 가부장적 의식과 구조에 지배받는 일상으로부터, 전쟁이라는 비일상의 강간은 「유효한 전술」로써 연속성이 있어왔다. 구 유고의 내전 하에서는, 민족정화라는 미명 하에 강간(강제임신)이 전술로서 사용되었고, 르완다나 코소보 분쟁때에도, 여성들은 성폭



력에 노출되었다.

구 유고, 르완다의 범죄법정에서는 성폭력이 범죄로서 심판이 행해졌는데, 전시성폭력은 「전쟁과 성폭력」에서 「군대와 성폭력」으로 그 도식을 넓히고 있다.

한국이나 일본에 주류하는 미군기지 하에서 반복되고 있는 성폭력은 말할 것도 없이 리베리아, 기니아, 시에라레오네에서는 현재에 주류하는 국제평화유지군의 병사를 시작으로 유엔구두변무관 사무소를 포함한 유엔 기관, 국제 NGO의 현지 직원등, 약 40개 기관의 70명 이상이 난민 캠프에 사는 10대 소녀들을 인도지원물자와 교환으로 강간했다. 소말리아에서도 인도지원을 위해 준비되었던 유엔 평화유지군이 물자와 교환으로 여성을 강간하는 사건이 오랫동안 방치되어있었다.

그러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지금도 여전히 PTSD로 괴로워하고 있다.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국가가 명확한 책임을 지지않는 한, 피해자는 새로운 인생을 내딛을 수가 없다.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가 반세기 이상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피해 회복이 막혀있는 것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과거, 나치 전범을 추적해왔었던 사이몬 비젠탈은 「기억속에 재생의 가능성이 감춰져있으며, 망각속에 파멸의 길이 숨어있다」라 했다. 재발을 방지하고, 전쟁의 세기가 불러일으켰던 참화를 다음 세대에 넘겨줄 증오와 슬픔의 연쇄를 자르고, 진정한 화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의 잘못과 진지하게 직면, 그 잘못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억은 '책임'과 뗄 수 없다. 여성 국제 전범 법정의 판결문은, 「기억의 보존」에 대해, 「위법행위와 피해자가 받은 손해의 기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은 사회에서 피해자의 명예를 공적으로 회복하고 그러한 무서운 행위의 재발 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기억의 보존」 즉 기록과 자료의 공개, 조사 피해 증언을 반복해서 증언하는 것은,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결한 행위인 것이다.

현재 VAWW-NET저널 과 아시아 여성 자료센터를 중심으로 설립한 NPO법인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인권기금」은,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의 건설을 향한 준비를 진행중이다. 「위안부」 문제의 해결과 전시 성폭력의 근절, 여성 인권 확립을 목표로, 아시아 전역의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과 「위안부」 관련 자료등 기록을 보존, 정보의 수신 발신 기지로서 활동을 펼쳐나가는 이 운동은, 헤이그 판결 권고의 실현을 향한 하나의 액션이다.

자료관에는 이름을 밝힌 모든 피해자의 증언을 수록한다. 그 준비로서, 아시아 「위안부」 피해증언전집 7권의 출판 사업과 모든 「위안부」 피해자 목록 만들기에 착수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도 「위안부」 자료관의 계획이 예정되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러한 「기억의 보존」에 대해서는 각국의 상호 협력이 불가결하며, 「기억의 보존」네트 워크의 설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 박영심씨의 피해조사

한편, 아시아 연대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조사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이제까지 각 나라 지역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한 청취와 조사를 진행시켜왔는데, 최근에는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제까지 기록되어온 피해 증언과 일본에서의 가해 증언, 조사를 결합시키는 일들은, 즉 피해국과 가해국이 연대하여 조사의 기록화에 들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

이것을 제안하면서, 국제 연대 조사가 큰 성과를 낸 경우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주재의 박영심씨의 피해 조사에 관해, 일본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중국과 연대하여 해왔었던 국제 연대조사에 대해 보고하고자 한다.

2000년 여성국제 전범법정의 준비 과정에서 1944년 9월에 拉孟에서 미군의 사진팀에 의해 촬영된 네 명의 조선인 「위안부」의 사진에 찍힌 만삭의 「위안부」가 북한에 사는 박영심씨였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그러나 「법정」전에는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002년부터 다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박영심씨에 대한 청취는, 「조선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피해자보상대책위원회」와의 연대 하에 이뤄졌으며, 한편, 이제까지 손을 댈 수 없었던 현지조사와 현지에서의 청취에 대해서는, 雲南전에 정통하고 몇 번이나 현지조사를 해 왔던 중국인 저널리스트와 연구자들과 연대하여 진행해 왔다.

※ 중국 조사에서는 박영심씨를 발견한 중국군(운남원정군)에 있던 중국인 노인과 박영심씨가 있었던 부대에서 인부로 일을 하고 있었던 노인, 위안소 가까이 살고 있던 중국 인들에게서 증언을 얻을 수가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박영심씨가 최후로연행되었던 松山(마무츠야마)(拉孟)에 있던 拉孟수비대의 생존자인 일본 병사 (마지막까지 「위안부」와 행동을 같이 했다)와 拉孟의 최후에 대해 사단사령부 츠지마사노부씨에게 보고했던 중사, 비행기의 물자 투하시 지상의 「위안부」를 목격한 제3항공군비행대의 전 일본병등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다.

또한 작년 11월에는, 조대위(朝對委)의 멤버와 중국 측 연구자들과 합동 조사단을 결성하여, 박영심씨와 함께 연행지를 방문, 현지에서 기억 확인 작업을 하였다.

※ 남경의 「킨스이루」라고 생각되어지는 건물 앞에 서서, 박영심씨는 또렷한 목소리로 「분명히 여기입니다。」라고 단언했다. 당시 있었던 2층 19호실을 안내한 것도 박영심씨였다. 인터뷰 조사에서는, 저항했을 때는 체벌 방에 넣고 고문을 당했다고 얘기했는데, 체벌을 당한 고문 방이라는 것은 옥상의 뒤에 있는 방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옥상 뒤의 좁은 방에 알몸으로 갇혀, 「시키는 대로 하라」며 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작년, 미국 공문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拉孟과 騰越의 위안소에 있었던 25명의 「조선인전쟁포로 개인 데이터」 기록(昆明의 포로 수용소에서의 심문기록)이 발견되었다. 그것에 의해, 25명중 박영심씨가 있던 「마츠야마」(拉孟)의 위안소에 있던 조선인 여성은 10명이었



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거기에는 한사람 한사람에 대해 연행된 년월과 출신지, 연령, 출생 지 등이 기록되어 있어, 박영심씨가 연행된 것은 1939년 8월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때까지의 인터뷰조사에서는 1938년 3월경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왔으나, 이 기록에 의해 정확한 년월을 확인할 수 있었다.(상세한 증언에 대해서는 『전장의 위안부<戦場の慰安婦>』를 참조) 이러한 공문서 발견과 다면적인 인터뷰 조사에 의해 전체상을 분명히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연대의 성과이다.

또한 남경의 「킨스이루」 건물은 도시개발로 없어지게 되어, 주민에게 철거 통고가 나와 있다. 때문에, 바우네트와 「인권기금」이 남경의 문물(文物)보존국에 건물 사적 보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송부했다. 현재, 위안소였던 利濟巷 2호에서 18호의 일각은 철거 공사를 중단하고, 보존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2002년 9월 17일 북일수뇌회담에서 과거의 문제에 대해 경제협력이 합의되었는데, 이것은 일본 정부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책임이 없어진 것과 같은 것이 아니다. 한국의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피해자에 대해서도, 개인에 대한 사죄와 보상 문제는 미해결인 것이다. 오랫동안 방치되어왔던 북한의 보상문제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있다. 박영심씨를 시작으로 북한에 있는 피해자들은, 다른 나라의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고통이 된 지금, 마지막 힘을 짜서 정의의 실현을 바라고 있으며, 국제연대에 의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 \* 국민기금 문제

1996년 8월에 필리핀을 시작으로 시작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상 사업은 2002년 5월 한국, 타이완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

※마지막으로 19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의 국민기금의 지출총액은, 1072424678엔(「수지예산서」출처)으로, 이중 보상사업 결산액은 570085616엔, 운영경비는 784326811엔(※2000년도까지는 인건비와 관리비. 그 이후는 운영경비. 그중 인건비는 434937337엔)이었다.

일본 정부는 국민기금의 「보상사업」을 알리바이로, 사죄 보상을 회피해왔다. 작년 12월에 열린 국민기금 주최의 심포지엄에서는 「중군위안부라고 써있는 문서는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돈이 갖고 싶어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위안부였다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의 시민운동의 지도자의 선동에 사주를 받고(국민기금을 돈이 든 만두)라고 생각한 「위안부」도 있다」는 발언이, 패널리스트의 입에서 나왔다. 이렇게 피해자를 모욕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을 보아서도, 국민기금은 아무런 문제해결을 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모욕발언을 방류하고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우리들은 국민기금에 의해 피해자와 지원단체가 분단되었던 쓴 경험을 갖고 있다. 위로금을 둘러싸고 새로운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도 있다. 지금 우리들은 국민기금의 총괄을 명확하게 해내고, 국민기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운동을 구축해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번역 김경운)

## 「慰安婦」問題を巡る課題として

—記憶の保存と国際連帯の観点から—

西野瑠美子

「戦争と女性への暴力」 日本ネットワーク共同代表

「女たちの戦争と平和人権基金」 理事長

「武力ではなく平和的解決を！」と訴える世界の人々の声を押し切り、「反テロ」の名の下に正当性を掲げて始められたイラク戦争は、ブッシュ大統領による戦争終結宣言から1年を経た今、大量破壊兵器が発見されないことで戦争の大儀を破綻させたばかりでなく、劣化ウラン弾による被害やファルージャ市民の虐殺、イラク人捕虜虐待など、そのおぞましい実態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

今月になって発覚したアブグレイブ刑務所でのイラク人捕虜虐待について、赤十字国際委員会(ICRC)は1年以上も前からアメリカに警告していた。米軍は虐待が行われていたことを知りながら、その事実が発覚するまで見て見ぬふりをしてきた。問題になると「一部の兵士がやったこと」と組織的犯行であったことを否定したが、虐待がCIAの命令であったことはもはや否定できない。

ここにきて、女性捕虜に対してレイプを含む虐待が行われていた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虐待は米軍だけでなく英軍においても行われていたというが、女性に対する暴力について、今も米英軍が公表していない事実がある。

戦争が始まってから、特にバクダッドでは米英軍による強かん事件が多発した。被害者のなかには7歳の少女もいる。そうした事態に対して、イラクの女性医師ら現地女性団体は「強かん抗議するイラク女性連合」を結成し、性暴力被害の調査を行った。その結果、バクダッドを中心に未成年者87人、成年女性105人の強かん被害が明らかになり、これらの調査報告書は昨年、リストと資料と共にユニセフや「世界の医師団」を通じて米軍に送付されたが、米軍は未だその事実を公表していない。

### ● 「記憶の保存」

「慰安婦」制度の下で組織的に性犯罪が繰り返された戦争以降も、世界に戦争が絶えることは無く、戦時性暴力は依然として繰り返されている。イラク戦争がそうであるように、拷問下のレイプは紛争に常態化してきた。ビルマ軍事政権下でSPDC(「国家平和発展評議会」)が女性の拷問としてレイプを行ったことは人々の記憶に鮮明に焼きついている。

過去10年、レイプは敵対する相手に精神的ダメージを与える武器として、戦術化・戦略化されてきた。家父長的意識と仕組みに支配される日常が、戦争という非日常にレイプを「有効な戦術」として連続性をもたらしてきた。旧ユーゴの内戦下では、民族浄化の名の下にレイプ(強制妊娠)が戦術として使われ、ルワンダやコソボの紛争



下でも、女性たちは性暴力に晒された。

旧ユーゴ、ルワンダの戦犯法廷では性暴力が犯罪として裁かれたが、戦時性暴力は「戦争と性暴力」から「軍隊と性暴力」に、その図式を広げている。

韓国や日本に駐留する米軍基地下で繰り返される性暴力はいうに及ばず、リベリア、ギニア、シエラレオネでは現地に駐留する国際平和維持軍の兵士をはじめ国連口頭弁務官事務所を含む国連機関、国際NGOの現地職員など、約40の機関の70人以上が難民キャンプに住む10代の少女たちを、人道支援物資と引き換えにレイプを行った。ソマリアでも人道支援のために配備されていた国連平和維持軍が物資と引き換えに女性をレイプする事件が長らく野放しにされていた。

そうした性暴力の被害者は、今もなおPTSDに苦しんでいる。犯された犯罪に対して国家が明確な責任を果たさない限り、被害者は新しい人生を踏み出すことはできない。「慰安婦」制度の被害者が半世紀以上を経てもなお、被害回復が閉ざされていることは、それを証明している。

かつて、ナチスの戦犯を追求し続けたサイモン・ヴィーゼンタール氏は、「記憶の中に再生への可能性が秘められ、忘却の中に破滅への道が潜んでいる」と語った。再発を防止し、戦争の世紀が引き起こした惨禍を次世代に持ち越す憎しみと悲しみの連鎖を断ち切り、真の和解を実現するためには、何よりもまず過去の過ちに真摯に向き合い、その過ちを決して忘れないということだ。

記憶は「責任」と隣り合わせにある。女性国際戦犯法廷の判決文は、「記憶の保存」について、「違法行為と被害者が受けた損害の記憶を正確に記録し、保存することは、社会の中での被害者の名誉を公に回復し、そうした恐ろしい行為の再発防止を確保することとなる」と明記している。「記憶の保存」、すなわち記録や資料の開示、調査、被害証言を繰り返し語っていくことは、被害回復と再発防止のための不可欠な営みである。

現在、VAWW-NET ジャパンとアジア女性資料センターを中心に立ち上げたNPO法人「女たちの戦争と平和人権基金」は、「女たちの戦争と平和資料館」の建設に向けて準備を進めている。「慰安婦」問題の解決や戦時性暴力の根絶、女性の人権確立を目指し、アジア全域の「慰安婦」被害者の証言や「慰安婦」関連資料など記録を保存し、情報の受発信基地として活動を繰り返していくこの取り組みは、ハーグ判決の勧告実現に向けた一つのアクションである。

資料館には名乗り出た全ての被害者の証言を収録する。その準備として、アジア「慰安婦」被害証言集全7巻の出版の取り組みや、「慰安婦」被害者の全リスト化の作成に着手している。韓国や中国でも「慰安婦」資料館の計画が予定されていると聞いているが、こうした「記録の保存」については各国の相互協力は不可欠であり、「記録の保存」ネットワークの立ち上げを呼びかけたい。

#### ●朴永心さんの被害調査

一方、アジア連帯は、最終段階を迎えている調査においても重要である。これまで

それぞれの国・地域で「慰安婦」に関する聞き取りや調査を進めてきたが、最近はずしも調査が積極的に行われているとはいえない。これまで記録されてきた被害証言と日本での加害証言や調査を結合させる取り組み、すなわち被害国と加害国が連携した調査・記録化に取り組む時にきている。

これを提案するに当たり、国際連帯調査が大きな成果を生み出したケースとして、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在住の朴永心さんの被害調査に関して、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中国と連携して取り組んだ国際連帯調査について報告したい。

2000年女性国際戦犯法廷の準備の過程で、1944年9月に拉孟で米軍の写真班により撮影された4人の朝鮮人「慰安婦」の写真に写るお腹の大きな「慰安婦」が、北朝鮮在住の朴永心さん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しかし、「法廷」前には十分な調査が行えなかったため、2002年から再び本格的な調査に取り組んだ。

朴さんの聞き取りは、「朝鮮 日本軍『慰安婦』・強制連行被害者補償対策委員会」との連携の下で進め、一方、これまで手がつけられなかった現地調査や現地での聞き取りについては、雲南戦に精通しており、何度も現地調査を行ってきた中国人のジャーナリストや研究者らと連携して進めていった。

※中国調査では、朴さんを発見した中国軍（雲南遠征軍）の中にいた中国人の老人や、朴さんが入れられていた部隊で苦力として働かされていた老人、慰安所の近くに住んでいた中国人などからも証言を得ることができた。また、日本においては、朴さんが最後に連行された松山（拉孟）にいた拉孟守備隊の生き残りの元日本兵（※最後まで「慰安婦」と行動を共にした）や、拉孟の最後を師団司令部の辻正信に報告した中尉、飛行機の物資投下の際に地上の「慰安婦」を目撃した第三航空軍飛行隊の元日本兵などからも証言を得ることができた。

また昨年11月には、朝対委のメンバーや中国側の研究者らと合同調査団を結成して、朴さんと共に連行地を訪れ、現地で記憶の確認作業を行った。

※南京の「キンスイ楼」と思われる建物の前に立ち、朴さんははっきりとした声で「確かにここです」と断言した。当時入れられた2階の19号室を案内したのも朴さんだった。聞き取り調査では、抵抗したときに体罰部屋に入れられて拷問されたと話していたが、体罰を受けた拷問部屋というのは屋根裏部屋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屋根裏の狭い部屋に裸で閉じ込められ、「言うことを聞け」と暴行されたという。

一昨年、アメリカの公文書館に所蔵されていた拉孟と騰越の慰安所にいた25名の「朝鮮人戦争捕虜の個人データ」の記録（昆明の捕虜収容所での尋問記録）が発見された。それにより、25名のうち朴さんがいた「松山」（拉孟）の慰安所にいた朝鮮人女性は10名であったことも分かった。また、そこには一人ひとりについて、連行された年月や出身地、年齢、出生地などが記録されており、朴さんが連行されたのは1939年8月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それまでの聞き取りでは1938年3月頃ではないかと思われていたが、この記録により正確な年月を確認することができた。（証言の



詳細は『戦場の慰安婦』を参照) こうした公文書の発見や、多面的な聞き取り調査により全体像を明らかにすることができたのは国際連帯の成果である。

ちなみに南京の「キンスイ楼」の建物は都市開発で取り壊されることになり、住民に立ち退きの通告が出されている。そのため、パウネットと「人権基金」が南京の文物保存局に建物の史跡保存を求める請願書を送付した。現在、慰安所だった利済巷2号から18号の一角は取り壊し工事を中断し、保存について検討を進めている。

2002年9月17日の日朝首脳会談で過去の問題について経済協力が合意されたが、

こ

れは日本政府の被害者に対する被害回復責任が無くなったことと同じではない。韓国の被害者と同様、北朝鮮の被害者についても、個人に対する謝罪や補償の問題は未解決である。長らく置き去りにされてきた北朝鮮の補償問題は、今、新たな入り口に立った。朴さんをはじめ北朝鮮在住の被害者たちは、他の国の被害者と同様、高齢化した今、最後の力を振り絞って正義の実現を望んでおり、国際連帯による取り組みが求められる。

#### ● 国民基金の問題

1996年8月に、フィリピンを皮切りに始まった「慰安婦」被害者に対する償い事業は2002年5月の韓国、台湾への「償い金」支給の終了をもって終了した。

※ちなみに1996年度から2002年度までの国民基金の支出総額は、1072424678円(「収支予算書」より)で、このうち償い事業の決算額は570085616円、運営経費は784326811円(※200年度までは人件費と管理費。それ以降は運営経費。このうち人件費は434937337円)であった。

日本政府は、国民基金の「償い事業」をアリバイに、謝罪・補償を回避してきた。昨年12月に開かれた国民基金主催のシンポジウムでは「従軍慰安婦なんて書いた文書はどこからも出てこない」「お金がほしくて嘘をついても自分は慰安婦だったと申請する人だっている」「韓国の市民運動の指導者から吹き込まれて(国民基金を毒饅頭)と思い込まされた元『慰安婦』もいる」といった発言が、パネラーから飛び出した。こうした被害者を侮辱し、事実を歪曲する発言を見ても、国民基金は何ら問題解決をしていないばかりか侮辱発言を垂れ流しており、このまま放置しておくことはできない。

私たちは、国民基金により被害者や支援団体が分断された苦い経験をもっている。償い金支給を巡り、新たな苦痛を背負った被害者もいる。今、私たちは国民基金の総括を明確に行い、国民基金の事業に対して新たな運動を構築していかななくてはならない。

## 필리핀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정의를 요구한다

넬리아 산초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 대표

로라스 캄파니에라 전 '위안부' 피해자단체 국제 코디네이터

일본군'위안부'라 불리는 이들이 2차 세계 대전 시 일본군에 의한 성적 노예로서의 이야기들을 대중에게 드러낸 지 12년이 지난 지금, 피해자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주어져야 할 정의를 기다리고 있다. 시간은 그들의 편이 아니다. 그들 중 수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으며 다수가 병들고 가난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들의 나이가 70대 혹은 80대가 된 지금, 로라스(Lolas)는 피해자들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지지자로서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빚진 보상의 책임을 촉구하는 외로운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피해자들 중 대부분은 일본 제국의 군대가 필리핀에 공격을 시작하던 당시 십대의 사춘기 소녀였으며, 필리핀에 대한 일제의 공격은 식민지적 정복에 대한 조직적이고 대중적인 저항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침략 전쟁 속에서 여성들은 침략자들의 탐욕스런 본능으로 인해 가장 먼저 희생자로 전락하였다. 3년 동안의 점령기간 동안 일본 군대는 10대의 필리핀 아이들을 가정 밖으로 끌어냈으며, 그들을 일본 군대의 성적 노예 - 완곡하게는 '위안부' - 로 종사하게 만들었다.

일본군'위안부'는 세계 최악의 비밀 중 하나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나 1991 12월의 추운 겨울날, 한국의 성노예 피해자인 김학순은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에서 공식적으로 시위를 하며 그녀가 겪은 고통을 세계에 전했다. 한국 희생자의 공개발언에 힘입어 1992년 로사 헨슨(Rosa Henson)을 필두로 한 필리핀의 전성노예여성 조직은 피해자들이 일본 군대의 계약화 된 성적 대상이었음을 밝히기 위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갔으며, 비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일본 군인들은 필리핀인들에 대한 조직적인 잔학행위에 관련되어 있었다. 앞서 언급한 전 성노예여성 조직이 바로 마닐라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AWHRC)이다. 아시아여성인권협의회는, 대중들에게 성노예 피해자들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일본 정부가 도덕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수행하라고 요구하던 여성 투쟁 조직인 가브리엘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1994년 피해자들은 법적인 보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위한 압력을 행사하는 피해자들의 첫 번째 단체인 리라 필리피나(Lila Pilipina)를 조직했다. 1997년에는 마파니케를 근거지로 한 두 번째 피해자 집단인 말라야 로라스(Malaya Lolas)가 조직된다. 세 번째로 결성된 로라스 캄파니에라(Lolas Kampanyera)는 2000년에 결성되어 다양한 포럼과 재판지에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서울대회가 열리는 5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기간 동안, 필리핀 대표단은 대회참가자들이 2차 세계 대전 종식 60주년 기념식에서 일본의 경제적이고 도덕적인 보상에 대한 이슈들과 관련하여 결의를 이끌어내는 전략들을 계획함과 동시에 '위안부'의 투쟁에 대한 현 상태를 평가해 주길 희망한다. 한국과 대만, 중국의 '위안부' 생존자들은 파마간다의 76세 여성인 암모니타 바라자디아와 함께 서울에서 열리는 이 역사적인 회의에 기쁘게 참여하고 있다. 로라 암모니타는 로라스 캄파니에라의 회장이며 캄파니에라는 필리핀에서 세 번째로 형성된 가장 큰 규모의 성노예 피해자 단체이다.

'위안부' 사례가 밖으로 공개된 이래로 일본 정부는 회피, 지연, 관료적 무관심의 계책들을 마련했다. 그것은 '위안부'에 대한 '아시아 여성기금'과 같은 완화책을 제시하면서 보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방어막을 치는 것이다. 필리핀에 있는 다수의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그들의 성적인 학대와 노예들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적인 출처로부터 거두어진 기금을 통한 보상을 현명하게 거절했다.

여러 지역에 분산된 필리핀의 피해자들은 일본정부로부터 경제적인 보상과 공적인 사과를 받으려는 그들의 투쟁이 사실상 자포자기되는 행정의 연속 속에서 무관심과 무시로 고통 받고 있다. 대만과 남한의 '위안부' 사례에 있어서 그들의 정부는 이 문제에 결말을 내기 위해서 피해자들 뒤에 굳건히 서 있다. 타이페이와 서울의 의회는 자국의 '위안부' 여성들에 대해 일본 정부에게 도덕적 경제적 피해에 관한 보상을 요구하는 법안을 공식적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필리핀 의회는 로라스 캄파니에라와 다른 여성단체들에 의한 수십 년 간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을 마다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회와 상원의원들은 여성 활동가들에게 필요 법안에 대한 그들의 표를 약속함으로써 접근했다. 그러나 표를 모아달라고 의원들에게 상기시켰을 때 이는 마치 산만큼 일하고 쥐만큼 생산한 것처럼 노력의 대가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몇몇 입법자들 -Rodriguez Dadvivas하원의원, Del de Guzman하원의원 Loretta Ann Rosales상원의원, Loren Legarda 상원의원, Manny Villar상원의원- 에 대한 신뢰는 분명하다.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위안부'의 중요한 동맹자인 1998년 부대통령 후보 아로요의 사례에 대해 언급한다. 대통령 조세프 에스트라다의 시기를 거치면서, 아로요는 6년 전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아로요의 캠페인 트레일에 결합했던 예전 친구들을 위해 어떠한 격려의 말도 또는 지지의 발언도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아로요 대통령이 일본 정부의 의기양양함을 무너뜨리는 것을 혹시 마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정도다.

어떠한 조건 없이 자기 스스로 '위안부' 문제를 책임지는 에디 빌라에누바에 의한 승리를 로라스(Lolas)가 바라는 것은 당연하다. 전 성노예들은 빌라에누바의 루네타 집회에서 두드러진 참석자들이었으며, 그들의 대변인인 로라 암모니타는 그의 보증인으로서 TV에 출연했다.

여성인권의 투사로 알려진 대통령 후보 라울 로코는 피해자들의 후원자가 되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는 성노예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으며 이는 피해자들을 당혹시켰다. 다른 두 명의 대통령 후보자인 페르난도 포 주니어와 판필로 낙손은 '위안부' 문제보다 더 큰 이슈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위안부'가 두 번 고통을 당하게 하는 끔찍한 비극이다. - 첫째는 일본 군대에 의한 야만적인 고통이며, 둘째는 피해자들의 정의와 궁극적이고 적절한 문제해결에 대한 요구에 있어 일본 정부와 필리핀 정부가 행하는 기만으로부터의 고통이다. 피해자들이 이 세상을 더 떠나기 전에 다양한 국가들의 결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힘을 결속시키고, 필리핀 내에서의 법적인 시정을 위해 국가적인 움직임이 확정되어야만 한다.

(번역 오영주)



**The Sexual Slavery for Japanese Military: Philippine Movement Activities in 2002-2004 and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and Suggestions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resentation from the Philippines Delegation for the Seoul Conference of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Held in Seoul, Republic of Korea from May 20-23, 2004)**

**By Nelia Sancho, National Coordinator, Friends and Supporting Groups of the LOLAS Kampanyera Filipino Ex-Comfort Women Victims Organization**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 need for the resolution of the Japanese wartime crime of military sexual slavery thru the comfort women demand for state legal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has resulted into a more intensive lobbying campaign both in Japan and in the affected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aimed at urging the passage of the draft postwar compensation bill refiled in April 2002 in the Japanese Diet by 8 Japanese women senators. The proposed bill seeks the immediate resolution of issues by the Japanese government concerning the Japanese army's victims of wartime sexual coercion. On August 18, 2002, two women Japanese senators visited the Philippines to conduct an information campaign among the Filipino comfort women LOLAS and the members of the Philippin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re the draft bill at Japan Diet. A consultation was conducted by the Japanese authors of the bill to collect inputs and hear the comments of the victims and their supporting organizations in the Philippines. The visit of the Japanese senators and information given on the bill was greeted with a positive response and was given a wide media coverage by the Philippine media after the press conference organized on August 19 by Representative Rodriguez Dadvivas of Capiz District.

Another positive development is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networking and solidarity alliance work.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in the gathering of Asian and US supporting organizations of the comfort women and victims of wartime forced labor in the Asian symposium held in Pyongyang, DPRK from May 3-4, 2002. An international council of supporting organizations was formed that would be united in its demand and standpoint and mount a strategy to effectively campaign for the Japanese government to settle its responsibilities in its wartime past, with the comfort women issue at the top of the agenda.

In 2003, sustained lobbying was undertaken with Filipino legislators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Philippine Senate for the passage of draft resolutions filed by several legislators to support the post war compensation draft bill for the comfort women being discussed at the Japan Diet. However, no House or Senate resolution has as yet been passed.

In 2004, from January to April, Lolos Kampanyera engaged in a dialogue with a presidential candidate for the national elections in the Philippines who expressed open support for the victims demand for compensation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The candidate, Brother

Eddie Villanueva of Bangon Pilipinas political movement declared he will do what is necessary to advance the comfort women demand for the passage of House resolutions urging the Diet in Japan to pass the draft post war compensation bill, and for financial support of their needs as aging women. The Lolos Kampanyera members were introduced to a big crowd of 1 million people at the Luneta political rally in February 2004.

**CAMPAIGN TO ENSURE JAPANESE GOVERNMENT'S ACCOUNTABILITY**

1. The formation of an international network of supporting organizations from Asia and other countries on the comfort women issue was agreed on in 2002 to ensure effective campaigning.

The Pyongyang Asian symposium held 3-4 May 2002 resulted in an agreement to form the International Council that would settle Japan's past. The timetable set for the final organization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was the following year, 2003, with China supporting groups offering the city of Shanghai as venue. The AWHRC Philippines Coordinator was invited to represent the Philippine support movement for the comfort women lolos. She joined a core group of coordinators from different supporting organizations doing work on the comfort women and wartime forced labor issues in the countries of South and North Korea, Taiwan, China, the Philippines and the USA to realize the agreement and hammer out a draft constitution, membership policy and plan of action for the international network that would coordinate and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ampaign for legal redress for the victims of Japanese wartime atrocities. The coordinators met in Shanghai, PROC on Sept. 17-20, 2003 and the first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Solidarity Council Demanding Settlement of Japan's Past convened some 200 groups and individuals targeted for membership. The new international council have initiated work on issues that would advocate the comprehensive settlement of Japan's responsibilities for the invasion of Asian countries in World War II so that the affected peoples and countries from Asia could look forward to a new day of friendly and harmonious relationship with the former aggressor.

Today, we are seeing the convening of the Second Meeting of the ISCDSJP in Seoul, Republic of Korea from May 20-23, 2004. We express the wish that the Council will start to work on more specific and concrete joint activities that would commemorate the forthcoming year 2005, the 60<sup>th</sup> anniversary of the end of the 2<sup>nd</sup> World War. We agree that the next year should be marked as the turning point of the current movement against the Japanese wrongful history, in the context that the Rightist forces in Japan and in the Japanese government are on the rise. We do need to address the question of how to reinforce the network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against the rise of the Rightist forces in Japan.

One specific proposal discussed by supporting groups of the LOLAS Kampanyera in the Philippines is the holding of a regular Parliamentarians Forum and An Annual Legislators Workshop on the issues related to the settlement of Japan's Militarist Past with the comfort women compensation resolution as a major agenda. Several individual legislators in the Philippines have supported this idea of regularly coming together to strengthen the movement



for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More specific advocacy activities can be discussed if the parliamentarians/legislators forum would be held regularly.

#### The Legislative Campaign in the Philippines on the Comfort Women Issue

The AWHRC mounted a lobby campaign at the Philippin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in 2002-2003 to sensitize Filipino parliamentarians on the need to support the comfort women lolas by urging Japan Diet to pass the Japanese draft bill providing compensation to the victims.

The victim and supporting groups from the Philippines, namely the group of Lolos Kampanyera Para Sa Kapayapaan at Kumpensasyon ( Ex-comfort women grandmothers campaigning for Legal Compensation and For World Peace), the Friends and Relatives of LOLAS and the Buhay Foundation for Women and the Girl Child all worked closely with the Asian Women Human Rights Council (AWHRC) Philippines Secretariat in undertaking lobbying activities at the Philippin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to solicit legislative support for the draft compensation bill which was first filed at the Japan Diet around 4 years ago.

#### **From April 2002 to April 2003, legislative lobbying activities with Philippine senators and congresspersons were intensive and became the main focus of the year's work in support of Filipino comfort women.**

In June and July of 2002, a series of visits were made at the Philippine Senate by members of AWHRC, Buhay Foundation For Women and the Girl Child and the comfort women victims of the LOLAS Group to provide information to the Philippine senators on the draft postwar compensation bill at the Japan Diet. Photocopies of the Japan draft bill were made along with other materials from the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s on the comfort women issue. Twenty four information kits were distributed to cover all 24 senators. As a result, two Senate resolutions were filed, in addition to previous Senate resolutions in years 2000 and 2001, by Senators Loren Legarda Leviste and Ramon "Jun" Magsaysay which endorsed and supported the draft bill at the Japan Diet promoting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or the victims of the sexual coercion by the Japanese army. On August 18, two women senators who arrived in Manila to conduct a consultation with the Filipino victims re the draft Japan compensation bill also visited the Philippine Senate, met and spoke with Senators Legarda (Senate Majority Floorleader), Joker Arroyo, Kiko Pangilinan, Manuel Villar (Chair,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Gringo Honasan, Luisa Ejercito Estrada (Chair, Committee on Women). Their visit resulted in the filing of additional new support resolutions specifically expressing the Philippine Senate full support to the Japanese Senators' draft compensation bill for victims of wartime sexual coercion by Japan.

Ten days later, on August 28, the Senate Committee on Women chaired by Sen. Loi Estrada finally convened a committee hearing to discuss the proposed Senate resolutions and invited government agencies concerned with the issue as well as victim organizations. Julia Porras, a

victim and member of LOLAS Kampanyera Group, represented the Filipino comfort women victims at the Senate hearing and spoke urging the Philippine senators to pass existing senate draft resolutions endorsing the Japanese senators draft bill on post-war compensation measures. However, until today, the Philippine senators have yet to complete their committee meeting discussions re said Senate resolutions authored by Legarda and Magsaysay. In January, February and March 2003, further visits were made by the Philippines secretariat coordinator together with the Metro Manila and Arayat Lolos Lobby Group to Senator Ramon "Jun" Magsaysay to work out a specific resolution expressing the Philippine Senators desire to urge the Japan Diet to pass the post war draft bill.

A massive letter-writing was mounted by the LOLAS Kampanyera Group of Roxas City who delivered letters signed by 72 Lolos to 22 Senators on April 22, 2003 session. (Please refer to the attached copy to this report bearing original signatures of 72 Lolos of Roxas City in Capiz).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five visits to lobby the Philippine congressmen and women for specific resolutions to support the Japanese senators draft bill were made in April, July, August, October and December of 2002; and on February and April, 2003. Seventy two lolos of Roxas City also sent the congressmen similar letters given to the senators. AWHRC and the LOLAS Group members from Arayat, Pampanga also prepared additional letters to cover more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erewith is the status report of the resolutions filed at the Philippine Lower House:

#### **Status of House Resolution 231( Inquiry on the findings of the McDougal Report on Systematic Rape of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 Adopted as House Resolution 71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st December 03, 2001. As of now, the resolutions is still pending with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f the House Committee on Women because the TWG has pushed for refinements and collating the inputs and suggestions of those who attended the public hearing at the last Committee meeting held on October 8, 2002.
- The House Committee on Women chaired by Josefina Joson held a joint committee meeting together with the Committee on Civil, Political and Human Rights chaired by Loreta Ann Rosales last October 8, 2002 to discuss additional resolutions as follows: House Resolutions (HR) 71, 669,799 and HR 387 . They focus on varying themes, namely

**House resolution 71:** Resolution Directing the Committee on Women to conduct an inquiry, in aid of legislation, into the findings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McDougall Report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specifically on the Revelation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During World War II organized the subjugation and kidnapping of young women for sexual servitude, and for other purposes; authored by Representative Rodriguez Dadvivas of the Capiz Province Congressional District.

**HR 669:** Resolution Expressing the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Full Support to the Compensation Bill Filed by Shoji Motooka of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Seeking for the Immediate Resolution of Issues Concerning the victims of Wartime Slavery; authored by Rep. Del De Guzman.

**HR 799:** Resolution Expressing the Full Support of the Philippine House of Representatives for the Bill Filed in the Japanese Diet seeking immediate resolution of issues concerning the victims of wartime sexual coercion, commonly known as the comfort women with the end in view of addressing the unresolved issues concerning the comfort women; authored by Reps. Josefina Apostol, Crispin Beltran, Josefina Josen, Liza Masa and Nicholas, Satur Ocampo, and Cynthia Villar.

**HR 387:** Resolution Directing the Committee on Civil, Political and Human Rights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n what effective measures should be done by the Government to Support Comfort Women of the Second World War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Wartime Sexual Slavery submitted to the UN Sub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Geneva, Switzerland on 14 August 1998; authored by Rep. Loreta Ann Rosales.

These other resolutions have no further development since the said joint committee meeting on October 8, 2002. Follow-up visits were done in subsequent months either by phone call or personal visits by a core lobby group of 7 Lolos of Metro Manila and Arayat, Pampanga at least once a month.

Support resolutions were solicited from provincial and municipal governments where the victims reside, such as those in Arayat, Pampanga; Pangasinan; Roxas City and Capiz Provincial boards and Antipolo City. The local government body in Quezon City had also been approached in November 2003 and completed signatures by city councilors in February 2004 to the city resolution supporting legal compensation demands of the Filipino comfort women. All the local government resolutions specifically urged the Japanese Diet to pass the draft bill resolving the comfort women issue.

The intensive lobbying activities in 2002 till 2003 had been inspired by the visits made in August, 2002 by 2 powerful Japanese women senators who were accompanied by the Citizens Fund for Redress (CFR) based in Tokyo. They met with the Philippine media and discussed with Philippine Senators and member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proposed post war compensation measure. The members of the CFR Tokyo group were led by Mr. Ken Arimitsu and Kim Yonhi who informed everyone in the Philippine support movement for the comfort women. More than a hundred comfort women victims from the

three victim organizations of the Lila Pilipina Lolos, the Malaya Lolos and the Lolos Kampanyera were invited. More than half of the victims who attended are members of the LOLAS Kampanyera Group. Coordinators of the supporting groups of Lila Pilipina and Gabriela, AWHRC Philippines Secretariat and Buhay Foundation for Women and the Girl Child also attended. The AWHRC Philippines secretariat facilitated the visit of the Japanese senators and CFRTokyo supporting partners in Japan, and coordinated their consultation meeting with all the comfort women Lolos.

The AWHRC Secretariat Coordinator was mainly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the lobbying activities, and mobilized some prominent women in the country to liaise with the Filipino legislators in support of the comfort women issue.

#### **Rallies and demonstrations continued to be organized and held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in Manila.**

Six demonstrations were successfully organized in 2002 by the Lolos Kampanyera Group members coming from Metro Manila and Arayat, Pampanga, with support from AWHRC. The mass action was sustained as a tradition of symbolic protest by the Filipino comfort women to highlight the continued inaction and indifference by the Japanese government. Lolos Kampanyera, with an average of 39 - 50 participating Lolos, relatives and supporters from Metro Manila, Pangasinan and the majority from Arayat, Pampanga, decided to hold only six demonstrations for 2002 ( March 8, April 16, May, August, September 24, October 25) as financial resources to realize the mass actions were limited. It was also noted and taken into account that the Lila Pilipina Lolos with Gabriela support have held also 6 or more actions in front of the Japan Embassy in the same year. The Lolos are also growing older and weaker, and so their condition is taken into account when determining the frequency of Lolos participation in mass actions.

In 2003, lobbying actions at the Philippine Congress became the focus of the mobilization of Lolos Kampanyera instead of holding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Japan Embassy. However, Lila Pilipina Lolos, with Gabriela support, have sustained to hold more or less quarterly demonstrations in front of the Japan Embassy in 2003.

#### **CAMPAIGN FOR THE CREATION OF A JOINT GOVERNMENT-NGO FACT FINDING COMMITTEE ON COMFORT WOMEN**

This campaign resulted in the convening of a public hearing by the House Committee on Women of House Resolution 71 on October 08, 2002 which directed the Committee on Women to conduct an inquiry, in aid of legislation, into the findings of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Violence Against Women, and McDougall Report on Systematic Rape, Sexual Slavery and Slavery-Like Practices, specifically on the Revelation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During World War II organized the subjugation and kidnapping of young women for sexual servitude, and for other purposes. House Resolution 71 was the offshoot of an earlier resolution authored by Representative Rodriguez Dadvivas of the Capiz Province



Congressional District, the **House Resolution 231 (Inquiry on the findings of the McDougal Report on Systematic Rape of Comfort Women during World War II)**.

House Resolution 231 was adopted as House Resolution 71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last December 03, 2001. As of now, the resolution is still pending with the Technical Working Group of the House Committee on Women because the former has pushed for refinements and collated the inputs and suggestions of those who attended the public hearing at the last Committee meeting held on October 8, 2002. One of the inputs was specifically to create a joint government-NGO fact-finding committee to investigate the crim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s practiced in the Philippines and identify the number and identities of still surviving comfort women victims. The National Commission on the Role of Filipino Women (NCRFW), the Philippine government agency for women issues, volunteered to liaise with all comfort women supporting groups for the task of identification of victims. The executive director of NCRFW took all the addresses and information to enable her to reach all the groups. To date, there has been no word from the government's women's agency chaired by Aurora Javate de Dios.

#### CAMPAIGN TO DEMAND FINANCIAL SUPPORT FROM THE PHILIPPINE GOVERNMENT FOR VICTIMS/SURVIVORS

This campaign resulted in the proposal to file a House resolution to provide a pension scheme for surviving comfort women survivors. This specific proposal came about during discussions held at the Committee on Women public hearing on October 8, 2002 at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en congressmen and women attended the public hearing. Two victims organizations were represented – the Lolos Kampanyera Group and the Lila Pilipina Lolos. Both gave written presentations of their demands to the Committee. The Committee on Women chair, Rep. Josefina Josen, gave her full support to the recommendation to file a House Resolution expressing the provision of financial support to the Filipino Lolos. This resolution has still to be followed up with the Committee members for formal filing and further hearings to be conducted by them.

#### ONGOING INTERVIEWS, STRENGTHENING OF LOLAS ORGANIZATION FOR MUTUAL SUPPORT AND PSYCHOLOGICAL RESEARCH ON LOLAS for Court Action and Human Rights Advocacy

From April 2002 to April 2004, ongoing interviews and documentation work to substantiate the initial stories given by the latest group of survivors have been conducted by the Coordinators of Lolos Kampanyera both in Metro Manila and Arayat Pampanga, as well as in Capiz Province (with the assistance of 19 supporters from Roxas City, for the victims/survivors residing in Roxas City and other cities and municipalities of Capiz Province). Out of 150 victims listed, 45 lolos have so far been substantiated thru a series of interviews, home visits and garrison site visits. There is great and urgent need to get video camera equipment, and a digital camera for use in documentation and interview work. The

Lolos as living evidences have to be preserved in their storytelling thru the photo and video equipment. The situation today which finds the lolos dying one after another, as the days pass, makes it especially urgent to preserve their oral history thru the video camera equipment and photos.

In the year 2000, The Philippines Secretariat Coordinator enlisted the help of 6 Filipino lawyers for the first take interviews of some 25 Lolos ex-comfort women victims from Arayat, Pampanga. But the Filipino lawyers could not sustain their volunteer work as they were taken up with their own jobs. It must be said that the interview and documentation work on each victim who approaches the AWHRC for exhaustive documentation support takes about 2-4 years to complete. The first take interview with an output of a basic story can be completed in three months. But the substantiation (or providing the evidences) takes more time to complete. This process was seen in the first batch of Lila Pilipina Lolos who approached AWHRC in 1992. The volunteer lawyers from Japan who did the exhaustive interviews and visits of garrison sites and homes of Lolos took 6 years, and much financial and equipment resources, to complete the documentation for the 46 Lola plaintiffs whose lawsuit was filed at the Tokyo District Court. Their submission of initial complaints of sexual violence to the Japanese domestic court had to be fully substantiated.

In the case of the latest batch of survivors in the organization of the Lolos Kampanyera who approached AWHRC Philippines Secretariat for support, the latter have to rely on their own limited staff and resources to undertake the exhaustive documentation and interview work. So the process to fully substantiate the Lolos Kampanyera victims' first take stories require a longer time than it did with the Lila Pilipina Lolos. The present number of the Lolos Kampanyera group increased from the initial registered list of 85 victims to 150 due to the sustained documentation work of AWHRC which continued to receive new victims that recently surfaced from the period 2000 to 2003. From a listing of 150 victims, the active survivors in the Lolos Kampanyera group have been reduced to 85 because there were victims that have passed away in the last two years. There are 55 from Roxas City and other areas of Capiz Province; 25 from Arayat, Pampanga; and 5 from Metro Manila and Pangasinan. Mobilization of lolos for various activities come from the present active members of the Lolos Kampanyera Group. During the last three years, total of 25 have passed away or have become bedridden- 10 from Arayat, Pampanga and 15 from Capiz Province, mostly from Roxas City. For the Lila Pilipina Group, around 40 registered victims have died in the last ten years.

The work of paying attention to the victims' health situation and of the emotional and psycho-social development of all our Lolos is, to say the least, a huge task which the supporting groups could hardly cope with. The health situation of many surviving Lolos have not been so good. Many have poor nutrition and weak eyesight.. Several are in ill health, suffering from either tuberculosis, cancer, diabetes or heart ailments. Though it is difficult to cope with the situation because of the limited resources on hand, efforts have been made by the AWHRC and other supporting groups to meet the various needs of the victims throughout the past one year. Vitamins and medicines to treat tuberculosis, diabetic complications and pneumonia



ailments have been solicited from some congressmen and women and senators. However, the solicitation result is still woefully inadequate.

Therapy in the form of counseling, bonding sessions, self-esteem building workshops and regular monthly meetings providing the lolas with moral and emotional support and strength have been consciously conducted and appreciated as a must-do activity for the Lolos. This is the reason why the Philippines Secretariat coordinator travels on a regular basis, at least once if not twice a month, to visit the Lolos in Roxas City. The travel to Roxas City is done after or before the visit to Caticlan AWHRC office which can easily be reached by overland bus ride. Therapy workshops were held in 2002 and 2003 for both Lolos victims in Arayat, Pampanga and Capiz Province.

The following workshops for Roxas City Lolos were held in 2002, 2003 and one in 2004: Tree of Life drawing and storytelling workshops were conducted in Roxas City on April 27, 2002 and May 3, 2003 for 40 women victims. A group therapy for 35 comfort women lolos, who were brought to the same garrison in CAPIZ EMMANUEL HOSPITAL in Roxas City, was done with support from 10 supporters. This was conducted for one whole day at Nesta's Baybay Resort in Roxas City on August 3, 2003. A selected number of Lolos were invited for a more intensive counseling and self-esteem workshops at the Caticlan AWHRC Reception Center as follows: 6 Lolos and 6 supporters from Roxas City participated at a one day workshop on November 12, 2003 followed by a swimming session the following day; a two-day workshop was conducted on Nov. 13-14, 2003 for 8 lolos and 4 supporters. On April 8, 2004, a workshop at Nestas Baybay was conducted.

I would like to describe more fully the specific therapy workshop session for some 35 victims who were quartered as sex slaves at the Capiz Emmanuel Hospital in Roxas City, Capiz Province in the island of Panay, Western Visayas region. The hospital was transformed into one of the biggest military garrisons and comfort stations of the Japanese army in Panay Island during World War II. In the therapy session held for the first time with Roxas City Lolos, the 35 lolos victims gathered at the NESTA's Beach Resort, located 1 kilometer away from the city center, for one whole day. In four small groups of 9 Lolos each group, they shared about their childhood experiences and their life inside the Emmanuel garrison. Many victims felt that hearing the experiences of the other lolos made them supportive and closer to one another. They found the solidarity that was generated through the therapy workshop an affirming experience that strengthened and empowered them.

Trainings for Roxas City supporters (about 19 participated) were also conducted on July 7 and on May 11, 2002. The training seminars focused on knowledge building about the comfort women issue, and attitudes building in dealing with the comfort women victims. Conflict resolution processes regarding relationships with family members and those in their community were also discussed, especially the impact of stigmatization and verbal abuse towards the lolos related to their sexual experience with Japanese soldiers. The objective was how to provide more effective support to the development of the victims self-esteem and providing care and attention to their specific needs for their physical, mental and emotional health.

Workshops and trainings were also conducted for the Lolos in Arayat, Pampanga and Pangasinan on a per group basis. These were conducted at the Lolos "Daluyan" Reception Center in Mandaluyong City in Metro Manila on July 9, 23; April 17 and September 8, in 2002. These were conducted by Flor Marmol and Nelia Sancho. Other trainings held from January to March in 2003 had to be conducted by Flor Marmol alone as Nelia have her own schedules with the Roxas City lolos or is overseas, and could not join her.

Home visits to the Lolos were conducted by not only the AWHRC secretariat staff but also by the group of supporters based in Roxas City. Regular monthly meetings (usually held at the last week of each month) were ensured in each area by their respective coordinators (Flor Marmol for Arayat, Pampanga and Lita (Daday) Gallano for Roxas City). The monthly meetings were not realized in certain months in Arayat, Pampanga (such as May and July 2002) when there are conflicting schedules with other activities such as demonstrations or trainings. The AWHRC Philippine Secretariat Coordinator would attend monthly general meetings when available and able to find the funds for travel in each place. Such general assemblies were conducted for Lolos in each area and serve as bonding sessions for all the victims in the organization. These also serve as forums to discuss and inform on campaign developments, and to plan for future actions and lobbying activities. The Lolos general meetings in the year 2002 in Arayat, Pampanga were held on March 16, April 27, June 30, Aug. 27, Sept. 27, Oct. 28, Nov. 20 and Dec. 29. For 2003, the Arayat Lolos general assemblies were conducted in January, March 6 and 28, and April 30.

The 2002 Lolos monthly meetings in Roxas City took place on April 27, May 18 and 22, June 29, July 6 and 26; August 31, Sept. 27, Oct. 26 and 28, Nov. 30, Dec. 14, 19, 20 and 28 (which included the Christmas Party of the Lolos). Likewise, 2003 meetings were held once or twice a month. It was a good thing that Roxas City Lolos are assisted by an active group of 19 supporters, many of whom are relatives and family members. They are so active and supportive that the supporters and relatives formally organized themselves in March 2003 into a supporting group called FRIENDS AND RELATIVES OF LOLAS IN ROXAS CITY.

Sustained meetings of the Lolos victims both in Arayat, Pampanga and Roxas City in Capiz Province were held monthly all throughout 2003 and the first four months of 2004 conducted by the local coordinators.

Hosting of visitors from overseas solidarity groups were also undertaken and provided the atmosphere of support and friendship for the Lolos. In 2002, the Arayat Lolos in Luzon island and those in various places of Metro Manila, received the CFR-Tokyo visitors from Japan in August. In 2003, they received ten Japanese visitors of the Peace Cycle group on March 11. On February 23, 2003, Lolos Menen and Maria were interviewed by Christa of the EZE Evaluation Team at the Lolos Reception Center in Mandaluyong City in Metro Manila. On March 5, 2004, the Japan Peace Cycle Group again visited the Lolos of Arayat Pampanga with a group meeting and photo session held at the MacDonaldis Restaurant at the UP Citimall in Diliman, Quezon City.



As for the Roxas City lolas, in 2002, they received the CFR-Tokyo visitors on August 21-22 and Corinne Kumar of AWHRC from Bangalore and Tunis on Sept. 27-28. Corinne was the Lolos and supporters' special guest for the press forum held on Sept. 28 in Roxas City to mark the Filipino comfort women's 10<sup>th</sup> year campaign for justice and legal redress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In 2003, two groups of overseas visitors were received by the Roxas Lolos and supporters. The first was the filmmaking group called Blueprint Films based in New York City, USA. They were researching on the comfort women issue for a future film documentary on trafficking, linking the comfort women to the trafficking in women issue. Roxas Lolos also received Christa and Rosemary of the EZE Evaluation Team on February 26-27. The two visitors joined the Roxas City Lolos and Supporters first ever Women in Black action in Roxas City organized on February 27, 2003.

#### **Other Support Activities Undertaken for the Lolos**

Various support work activities from April 2002 through April 2004 were undertaken as part of strengthening the campaign for the Lolos demand for legal redress, such as:

1. Continuing documentation of garrison sites and interviews of newfound victims were done throughout the year. Roxas City in Capiz Province has now registered some 72 lolos (from the previous record of 33 victims). AWHRC supporting group and Lolos Kampanyera, a victims group, made a thoroughgoing study of the life and experience of 15 sex slave victims in the last one year. A book publication is being planned but the funds have not yet been raised.
2. A website for Filipino Comfort Women activities in the Philippines has been set up last year with [www.lolasonline.org](http://www.lolasonline.org) as the title or URL. The website content consisted of some stories of lolos, reports on advocacy activities and photos. Since the launching of this website in September 2002 by the Lolos Kampanyera and AWHRC, we found it has served as a useful reference for Filipino history students and those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such as the USA. Among the website's many visitors, ten students from the USA and Philippine universities have written to the AWHRC and Lolos website editor to express their thanks for the information given on the issue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pecifically on Filipino comfort women. The Filipino students of history courses have asked for direct interviews and meetings with Filipino victims who are members of the Lolos Group. The AWHRC Philippines Secretariat coordinator made replies through the feedback section of the website and arranged for meetings of the comfort women victims with the history students researchers who are making term papers on wartime atrocities of Japan and its impact on Filipino women during the World War II.
3. Commemorative activities celebrating and marking the 10 years (1992-2002) anniversary of the Philippine movement for legal redress for the Filipino Comfort Women Lolos were organized and conducted throughout the year 2002 by victim organizations of LILA Pilipina and Lolos Kampanyera (Lolos Group) and their support groups, the Asian Women Human Rights Council (AWHRC), Gabriela and

Buhay Foundation for Women and the Girl Child. As part of commemorative actions, two demonstrations of Lolos and supporters were held on March 8 and September 2002 to highlight Japan government inaction for the last 10 years as there is still no offer of a sincere and official apology to each individual victim, and no legal compensation has been forthcoming from the Japanese government.

4. A symposium to advocate for legislative action from the Philippin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was organized by AWHRC and LOLAS Group on October 2, 2002 as part of the commemorative events of the 10th year anniversary of the Lolos' campaign. Four legislators attended the symposium - Representatives Rodriguez Dadvivas, Del de Guzman, Josefina Josen, Loretta Ann Rosales and Cynthia Villar. The congressmen and women discussed the House resolutions related to the support of the resolution of the comfort women issu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Japan draft bill authored by Japanese senators and filed at the Japan Diet.
5. There are reception centers set up to welcome the lolos, receive their stories, take part in workshops and trainings, meet overseas visitors or to simply relax and watch TV or have someone to talk to when they feel lonely. For the Lolos Group members from Arayat, Pampanga, Metro Manila and Pangasinan - they come and visit the reception center called DALUYAN HOUSE located at Mandaluyong City in Metro Manila. The center is managed by parttime volunteers. Among them were Anthony Sualog and Flor Marmol (the latter serves as coordinator of the Lolos Group in Arayat, Pampanga).
6. Filipino students of history or researchers come to the Lolos Center to meet or interview the Lolos (besides the Quezon Memorial Park which is a favorite picnic place in Quezon City for the Metro Manila lolos). The Daluyan house is a small center which could only accommodate from 4 to 10 victims at a time. It is rented for a small fee of US\$ 60.00 a month which the supporting groups try to fundraise locally every month. Another reception center is the AWHRC office located in the village of Caticlan, located in Malay municipality, Aklan Province. It is near the popular beach resort called Boracay. The center is in front of the sea. The lolos from Roxas City in Capiz Province could visit this center whenever they feel able to travel for three hours bus ride. They could stay overnight or participate in the therapy workshop held on the weekends, once or twice a year. The Lolos are accompanied by members of the supporting group from Roxas City. The volunteer coordinators of the local supporting group are Lita Gallano, Dr. Neneng Albanilla and Virginia Fabella. The 19 supporting group members from Roxas City undertake house visits of Lolos to check on their health situation, support the documentation work of AWHRC for the book publication, organize the monthly meetings of the Lolos and the joint birthday celebrations of Lolos having their birthdates on the same month.
7. Two evaluation meetings of the Filipino comfort women program were organized : August 15-16, 2002 with Pansol, Laguna as the venue; and January 16 - 18, 2003 in Caticlan AWHRC office. Invited the Lolos Core Group members from Metro Manila,



Pangasinan, Arayat and Roxas City who were elected as officers of the Lolos Kampanyera organization. Members of the supporting groups – the Friends of Lolos and Relatives in Roxas City and the Buhay Foundation for Women and the Girl Child were also invited. Some 15 persons sat together to evaluate the program quantitatively and qualitatively for the past one year, noted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made recommendations for the next year's plans and activities based on the goals and objectives of the program. It was in these meetings that the proposal to focus on lobbying the Filipino legislators to make them aware of the need to support the Japan draft bill for the victims' compensation was made. Most of the participants were new to the evaluation process, and felt awed by the number of activities undertaken during the past six months or one year to bring further visibility to the campaign.

8. Caravans for Peace was sustained with the Filipino comfort women when in November, 2002, and on March 2003, at the height of the US war against Iraq, more than 12 lolos and supporters traveled to Caticlan from Roxs City. Along the way, stops were made to different Lolos homes in various municipalities, discussed the purpose of the caravan in their community and with family members, and looked as well into the situation of the Lolos in their respective communities. Violence against the comfort women in war and conflict situations such as that of the exampl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was related to the contemporary violence against women in communities such as battering women in their homes, rape and sexual harassment in workplaces. Lively discussions took place.

## Forgotten Atrocity: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Henry K. Yoo, DVM(유 형규)  
Historical Justice Now 공동대표

**Introduction:** This article is written mainly to express the position of Historical Justice Now in the US in an effort to distinguish two distinctive efforts to bring justice to the war crimes conducted by Japan during the World War II. Although it is extremely crucial that the victims are recognized through the international legal efforts to provide reparations to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it still remains unresolved if we do not learn the decency of embracing our heart so that they do understand that there is other side of the world that may make up what they have lost from previous atrocities. By bringing more clarity to the importance of the justice to the historical atrocities, Historical Justice Now may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ociety. We are confident that this venture will be a successful one when continuous efforts are made through education and enlightening of the public on the basis of past history, especially for those who have not been exposed to modern Asian history and culture.

### Objective of Justice:

The USA is absolutely embarrassed by the abusive scandals that happened through the US interrogations at Abu Ghraib Prison in Iraq. It took only few infamous graphics and tenacious journalists to have the whole world to feel the anger against the atrocity. Violation of Human Right and sexual exploitation have been personally recognized and publicly acknowledged by US Defense Secretary Rumsfeld. Healing of the wound inflicted by the pain and suffering begins only when someone starts to acknowledge, admit and be remorseful for the wrong doings with sincerity.

No nation, no organization and no one need to exhibit or experience these atrocities under any circumstances. It does not matter whether it is now, later or the past when it comes to the intended human suffering. These basic principles of human dignity to be protected from any inflicted pain and suffering should be applied to any race, gender or religious group, culture as well as rank in the social status. It is important that this principle is recognized by all human kind and our generations to come so that human tragedies that we have experienced in the past history do not repeat in the years to come. Important point is neither in the legal intervention nor in ethnic revenge, but lies in our resuming a fair human being, decent society and a world with genuine concern on human dignity and rights. Positive efforts are to be made to bring justice to and for all so that our society maintains the decency without creating a vicious cycle through the victims of historical in-justice.

### Unfinished Business:

*"There has been no greater mass crime that I know of . . . that has been committed against modern women, modern-day women, in the 20th century."*-Statement of Brig. Gen. Vorley M. Rexroad (Ret.), January 17, 2001.

Here are excerpts from 105th Congress - House Concurrent Resolution 126 [Japanese War Crimes].



Expressing the sense of Congress concerning the war crimes committed by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Whereas during World War II the Government of Japan deliberately ignored and flagrantly violated the Geneva and Hague Conventions and committed atrocious crimes against humanity. United States prisoners held by the German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1.1 percent of the military prisoners and 3.5 percent of the civilian prisoners died during their imprisonment, but of the United States prisoners held by the Japanese military, 37.3 percent of the military prisoners and 11 percent of the civilian prisoners died during their imprisonment. Japanese biochemical warfare detachment in Mukden, Manchuria, commanded by Dr. Shiro Ishii,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living prisoners of war that included infecting prisoners with deadly toxins, including plague, anthrax, typhoid, and cholera;

If we add above two public statement by a retired U.S. General and Congress Resolution HR-105., we understand the incidents in Iraq is not near the gravity of what is being discovered from the Japan connection. Mistreatment in Iraq military prison may look so insignificant in it's magnitude, scale and duration of the atrocity. Important point is not the comparison of these two atrocities in magnitude but is in the tantalizing under rated recognition by the global society.

**Sex Slavery:** From 1931 throughout the duration of the Asian/Pacific wars, the Japanese Government instituted a system of sexual slavery throughout the territories it occupied.<sup>1</sup> During that time, women were recruited by force, coercion, or deception into sexual slavery for the Japanese military. The Japanese Imperial Army euphemistically referred to these women as "comfort women". Although historians often disagree about the number of "comfort women," the most widely used figure is estimated at 200,000. The majority (approximately 80%) came from Korea, then a Japanese colony, and another large percentage came from Japanese-occupied China.

Toward the end of the World War II, the use of "comfort women" was a widespread and regular phenomenon throughout Japan-controlled East Asia. The women held in sexual slavery were raped repeatedly -- by some accounts by 30 or 40 men each day -- day after day. Torture and beatings were common. Those who attempted to resist, and some who did not, were beaten, tortured, or mutilated; sometimes they were murdered. For some, the servitude lasted as long as eight years.

At the end of the war, many "comfort women" were killed by retreating troops or simply abandoned. For example, in one case in Micronesia, the Japanese Army killed 70 "comfort women" in one night just before the arrival of American troops. Others were abandoned, sometimes in dense jungles, when their Japanese captors fled. Many of those died of starvation and disease. Others did not know where they were, were hundreds of miles from their homes, had no money, and no means to return.

**Historical Injustice by the War Crime Nation:** International jurists in Geneva, Switzerland ruled in 1993 that women who were forced to be sexual slaves of the Japanese military during World War II (known by the Japanese military as 'comfort women') deserve at least \$40,000 each as compensation for their 'extreme pain and suffering'; The Government of

Germany has formally apologized to the victims of the Holocaust and gone to great lengths to provide financial compensation to the victims and to provide for their needs and recovery.

By contrast the Government of Japan is practicing historical injustice by refusing to fully acknowledge the crimes it committed during World War II and to provide reparations to its victims. Following may give us more clear understanding of what the US congress is recommending to Japan and it's government according to the 108th Congress - House Concurrent Resolution 226 [Japanese War Crimes], introduced by Congressman Lane Evans, in June, 2003.

Expresses the sense of Congress that the Government of Japan should: (1) issue an apology for the sexual enslavement of young women (known as "comfort women") during the colonial occupation of Asia and the Pacific Islands during World War II; (2) pay reparations to the victims; (3) educate future generations about this crime against humanity; and (4) publicly refute claims that the subjugation and enslavement of such women never occurred.

**Conclusion:** Time is running out. It is the nature of the public that their memory span may not be long. As the time goes by, these historical elements are going to be diluted. But for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is is their lifelong atrocity that may not be resolved before their deathbed. It is only fair thing to do but it is a crucial element of our society to acknowledge, admit and be remorseful on the horrible mistakes that has been committed. It is our job as Historical Justice Now to make a constructive and sensible issue to educate and enlighten the public so that there is genuine and fundamental support from the society to recognize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This may bring the first step in the healing process of trauma that the victims had to carry on for over 5 decades. At the same time we need to continue to work on War Crime Nation to realize the impending embarrassment they will experience in the years to come unless they begin to admit their wrong doing.

[End].

Dr. Yoo, co-president of Historical Justice Now, is a Healthcare consultant in Santa Monica, California. He is a graduate of the College of Veterinary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DVM. His postdoctoral degrees have been in Preventive Medicine from the Ohio State Univ. Dr. Yoo consults physicians and other healthcare industries such as Hospitals and HMOs. He is an Executive Consultant for **Infinity Medical Consulting & Co.** phone: 310-430-9196 or E-mail [yoohenry@hotmail.com](mailto:yoohenry@hotmail.com) or [henryyoo@aol.com](mailto:henryyoo@aol.com).